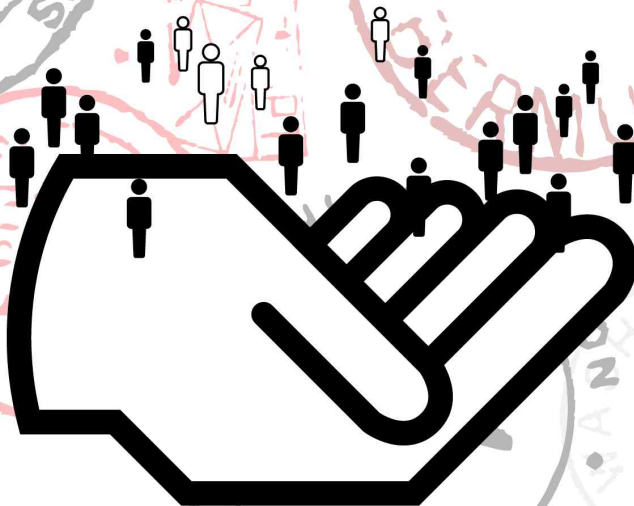


2014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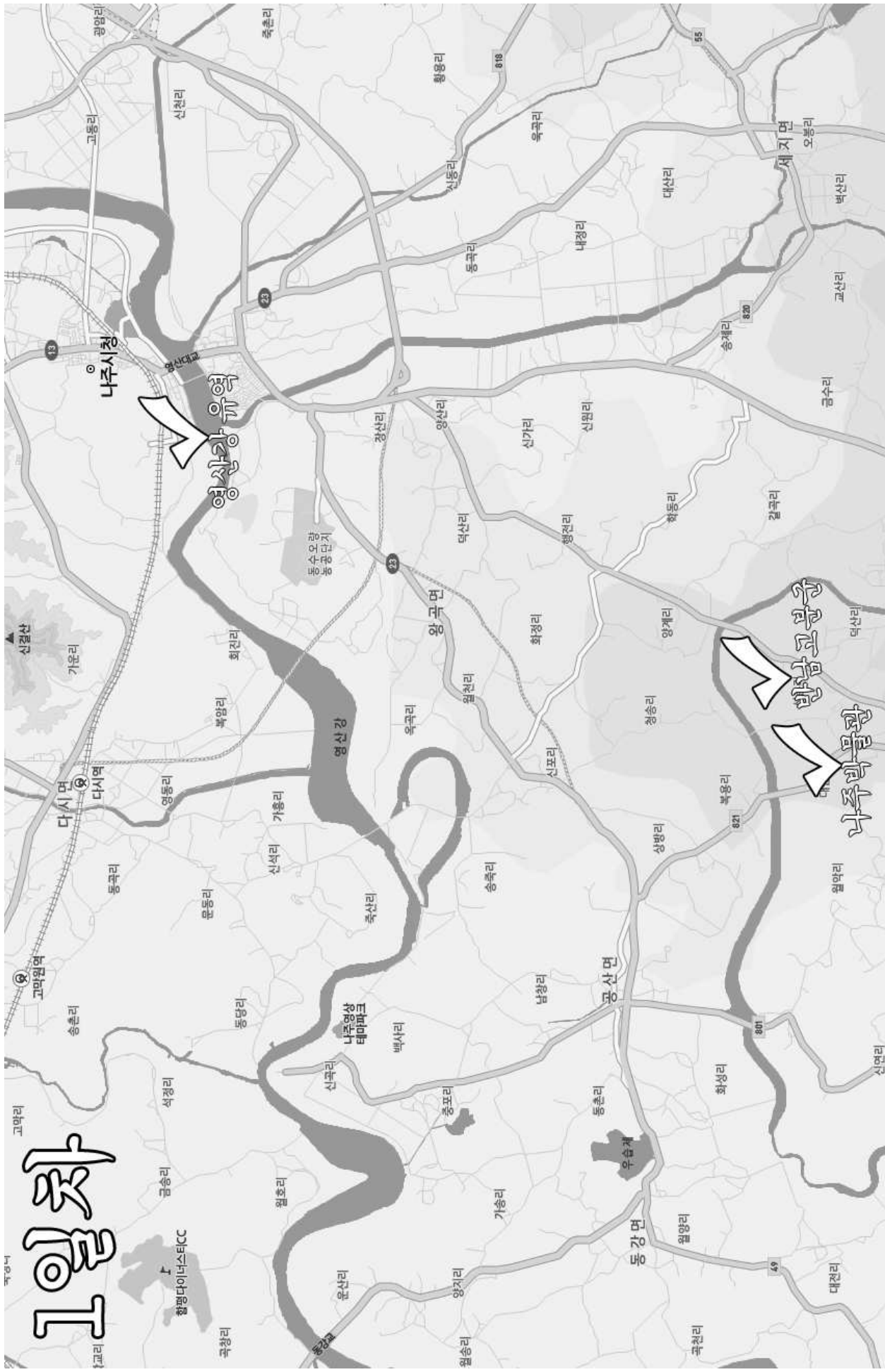
남도, 어디까지 가봤니?

-고인돌부터 망월동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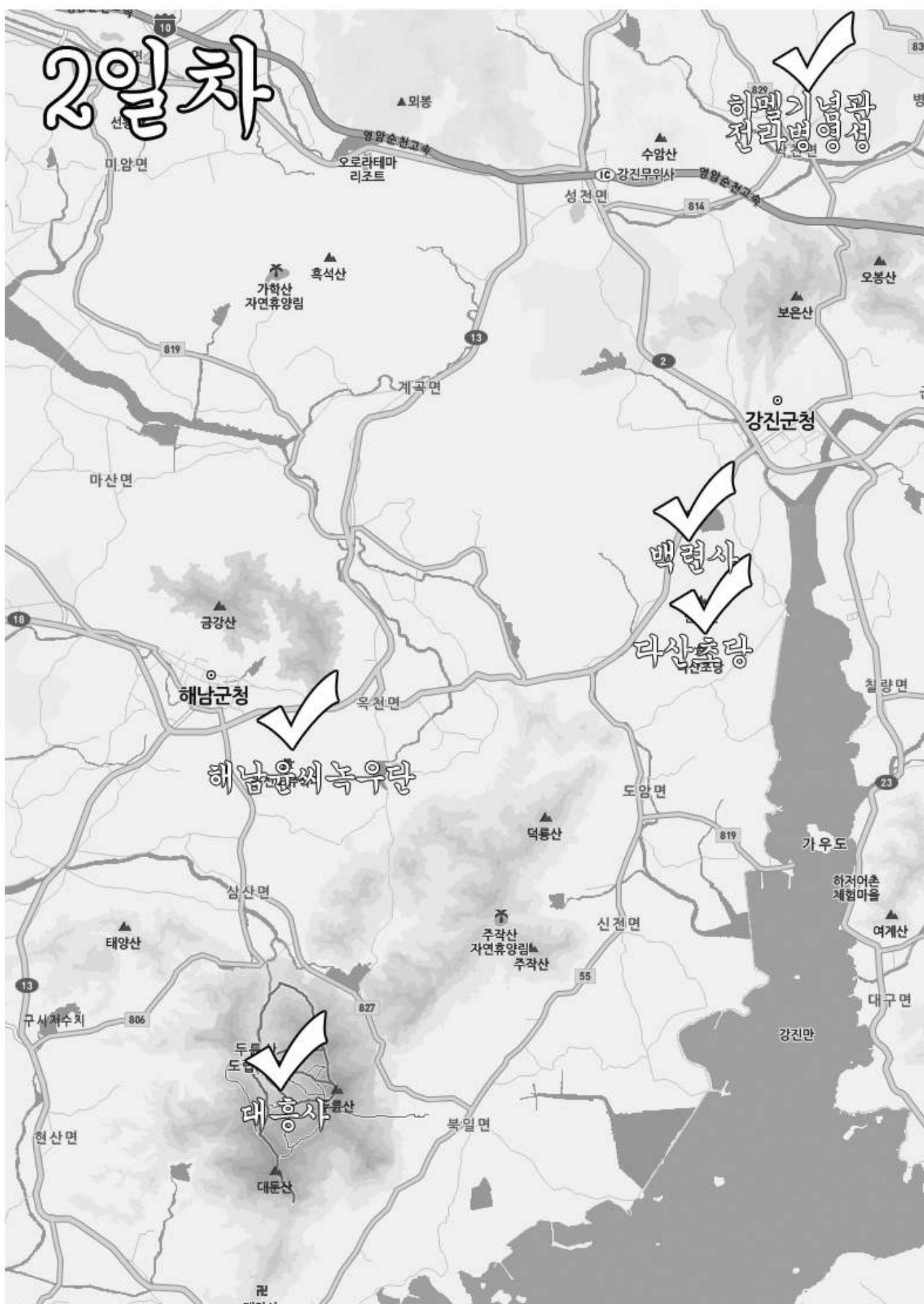


**연세 사학 2014
봄 정기 답사**

그림자



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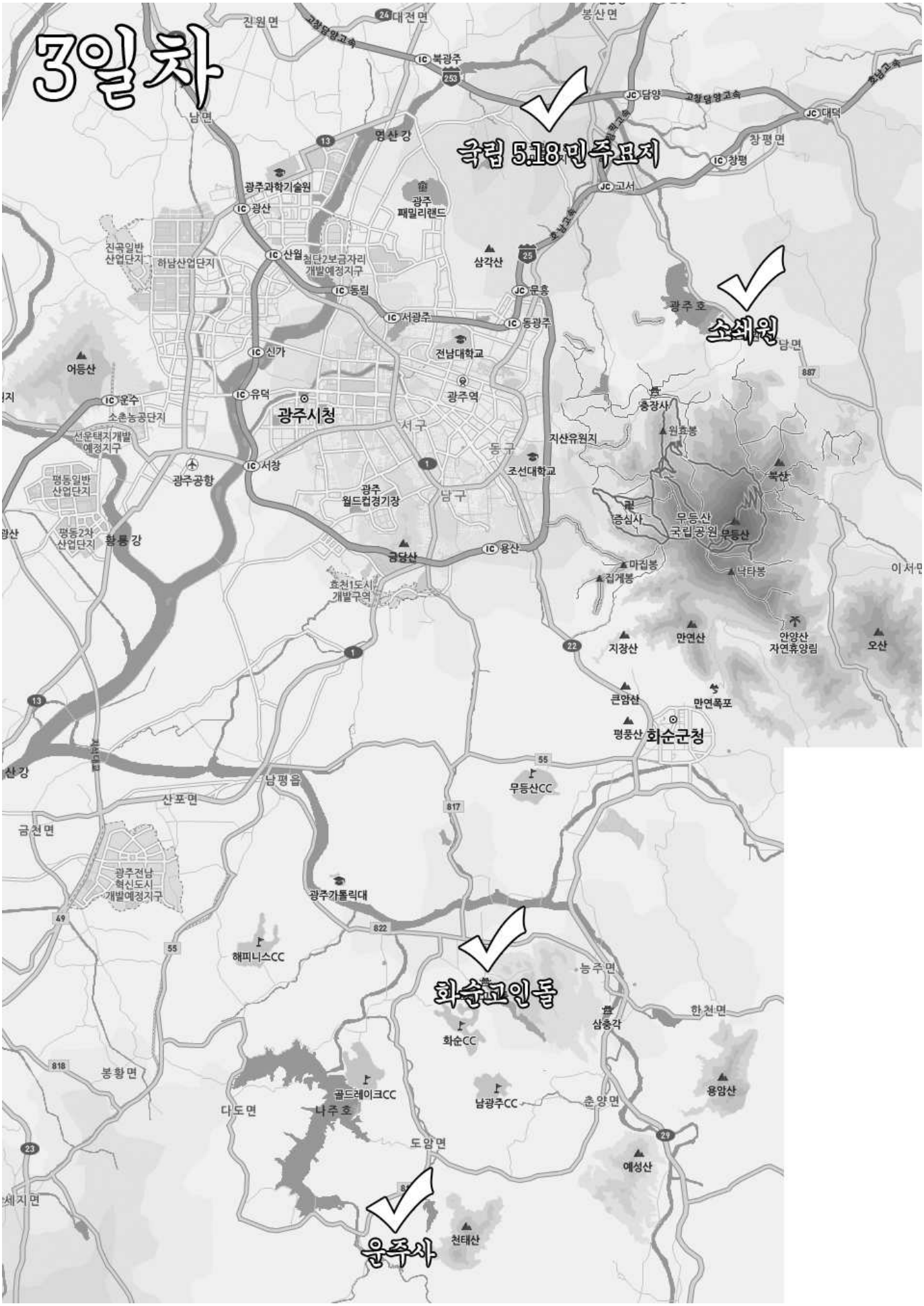
3일차

국립 518민주묘지

소쇄원

화순교인돌

운주사



일정

1일차

08:00~08:30	집결 및 인원파악	
10:30~11:00	휴식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영산강 일대 관람	(9쪽)
15:50~16:30	국립나주박물관 관람	
16:35~17:30	반남고분군 관람	(18쪽)
19:05~	보성유스호스텔 도착	

2일차

07:00~08:00	아침식사	
09:35~10:15	백련사 관람	
10:25~11:45	다산초당 관람	(38쪽)
12:25~13:25	점심 식사	
13:25~14:25	하멜기념관, 전라병영성 관람	(30쪽)
15:25~16:10	해남윤씨 녹우당 관람	(27쪽)
16:25~17:05	대흥사 관람	(22쪽)
18:45~	보성유스호스텔 도착	

3일차

07:00~08:00	아침식사	
09:30~10:45	운주사 관람	(42쪽)
11:05~11:40	화순고인돌유적 관람	(49쪽)
12:10~13:20	점심 식사	
14:10~14:50	국립518민주묘지 관람	(57쪽)
15:10~15:50	소쇄원 관람	(64쪽)
20:10~	연세대학교 도착	

목차

지도	3
일정	6
목차	7
1. 영산포와 일제강점기	9
(1) 일제의 영산포 수탈과정	
(2) 영산포 시가지 형성 및 특징	
(3) 동북아시아의 개항과 목포	
2. 신촌리 고분군과 마한 사회	18
(1) 신촌리 고분군 소개	
(2) 신촌리 고분군의 특징	
(3) 마한 사회의 구조와 성격	
3. 호국불교와 항일의병으로 본 대흥사	22
(1) 대흥사의 특징 및 역사	
(2) 호국불교의 의의	
(3) 서산대사와 대흥사	
(4) 항일 의병의 대흥사 심적암 전투	
4. 녹우당-윤선도와 윤두서, 그리고 정쟁	27
(1) 녹우당	
(2) 해남윤씨	
(3) 윤선도	
5. 하멜과 17세기 조선	30
(1) 하멜의 조선 표류 당시의 대외관계	
(2) 하멜 일행의 조선 체류기	
(3) 하멜 표류기가 유럽에 미친 영향	
(4) 하멜이 조선에 미친 영향	

6. 다산초당원 - 다산과 신유박해	38
(1) 정약용과 그의 사상	
(2) 유배와 다산초당에서의 삶	
7. 운주사와 천불천탑	42
(1) 개요 및 배경 설화	
(2) 연구 현황	
(3) 천불천탑	
(4) 와불	
8. 화순 고인돌 유적	49
(1) 고인돌과 거석문화	
(2) 화순 고인돌 유적	
(3) 화순 고인돌 유적과 세계 거석문화와의 비교	
9. 5·18 광주 민주 묘역	57
(1) 광주민중항쟁의 배경	
(2)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3) 광주의 기억	
(4) 역사적 사건을 기억으로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	
10. 소쇄원 - 양산보 그리고 기묘사화	64
(1) 양산보	
(2) 소쇄원 조영의 배경	
(3) 소쇄원에 담긴 사상	
(4) 소쇄원의 구성	

1. 영산포와 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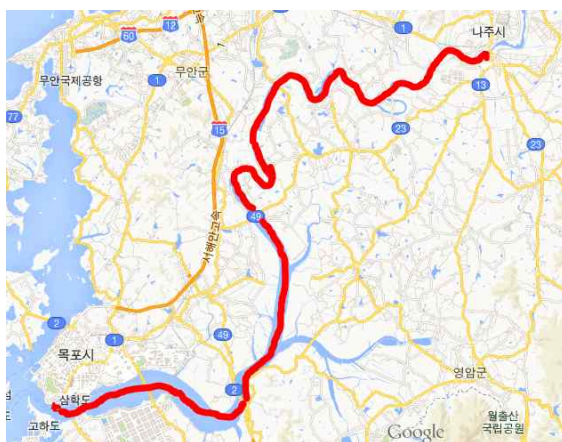
1조: 문헌기, 고재영, 이동건, 전장원, 최윤영

1. 日帝의 영산포 수탈 과정

(1) 榮山浦에 집중한 일제

일제는 임오군란을 빌미로 조일수호조규속약(1882)을 체결하여,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농민이 거주하는 마을까지 확장하였다. 內地行商이 허용되면서, 이미 1880년대부터 일본 상인들은 일제의 지원을 받아 조선의 내륙을 직접 돌아다니며 곡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며 침탈을 시작하였다. 湖南지역에 대한 침탈도 이때 시작되었다.¹⁾ 일제는 木浦를 개항(1897)하여 본격적으로 호남 內陸進出을 꾀하였다. 목포항에 자리를 잡은 일제는 榮山江을 따라 내륙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내륙진출 계획을 위해 그들은 향후 수탈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때 일제가 집중적으로 침투하여 식민수탈의 거점으로 삼으려 한 곳이 榮山浦였다.

영산포가 일제의 관심을 끈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영산포는 서북으로 길게 뻗은 언덕이 포구 뒤에 자리잡고 있어, 영산강의 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겨울에도 온난한 기후를 유지해 강이 얼지 않았다. 한편, 영산포는 조선시대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중소 포구였지만, 그 주위에 나주평야와 경지면적을 증가하는 未耕地가 펼쳐져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영산포가 영산강의 요지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개항기에 일제가 호남지방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운송수단은 水運이었다. 일제는 수탈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반드시 영산강을 이용해야 했다. 따라서 영산강의 요지에 위치하며, 동시에 목포와 가깝고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영산포가 식민수탈의 거점으로 선택되었다.²⁾ 당시에 영산포와 목포를 잇는 수로의



1) 김경태, 1994, 『한국근대 경제사 연구-개항기의 米穀貿易·放穀·商權 문제』 창비신서 131, 창작과 비평사, pp.171~172.

경로는 오른쪽과 같다.

당시 영산강은 조수의 차를 이용해 수운을 이용하였는데, 목포-영산포간 운항시간이 18시간에 달하였다. 일제는 가장 먼저 수운 개발을 통해 기존의 편도 운항시간을 5시간으로 줄였으며, 목포에서 영산포에 이르는 호남수탈의 통로를 구축하였다.³⁾ 영산포는 통로의 최종 목적지로서 호남내륙에서 수탈한 모든 물품이 모이는 集散地, 즉 수탈의 거점이 되었다.

(2) 일제의 土地收奪過程

영산포에서 일제의 토지수탈과정은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토지수탈을 통해 영산포 내에서 일본인들의 사회적 기반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일제의 토지수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우선 일본인들이 직접 토지를 대량 매입해 거대한 農場을 세운 경우이다. 개항기까지는 일본인들이 영산포에 상주하지 않았다. 그들이 客主의 집에 머물며 내지 行商 활동을 통해 곡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산포에 市場이 조성되었다.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영산포에 상주하기 시작한 것은 1902년 이후이다. 당시 1900년대 호남평야의 토지 가격은 일본 내 토지 가격의 1/10 또는 1/30 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선인에게 小작을 주면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작 농장은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소득이 높은 사업이었다. 따라서 영산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남의 경작지를 매입하려 하였다. 이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았던 영산포 일대의 미경지, 浸水地, 荒蕪地 등을 헐값에 구매한 뒤, 개간함으로써 2~3년 사이에 대농장을 경영하였다. 일본인들이 소작을 통해 얻은 이익을 다시 토지를 매입하기를 반복하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대토지는 점차 늘어났다.⁴⁾

1909년에 접어들어, 京城에 본점을 둔 東洋拓植株式會社(이후 동척)가 영산포까지 진출하였으며 토지침탈의 새로운 양상이 펼쳐졌다. 동척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산포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 때문에 영산포 주변의 토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 시기에 유명한 토지수탈 사건이 바로 宮三面⁵⁾의 토지수탈 사건이다. 이

2) 장석흥, 1990, 「일제하 영산포 식민기지의 형성」, 『한국학보』 58, 일지사, pp. 44~46

3) 위의 논문, pp. 49~50.

4) 위의 논문, pp. 51~56. p.75. 후에 영산포의 시장은 영산포 자체가 호남 산업의 집산지로 변모하면서, 주변의 나주나 남평을 능가하는 큰 시장이 되었다.

5) 궁삼면은 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전남 나주군에 속했던 枝竹面, 上谷面, 郁谷面을 칭하는 말이다. 이 세 면이 불법적으로 慶善宮이라는 궁궐의 宮庄土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삼면의 앞에 궁을 붙여 궁삼면이라 칭하였다.

사건은 부패한 관료들이 불법적으로 국유지를 확장하고, 동척을 위시한 일제가 치밀하게 그 국유지를 강탈한 전형적인 예이다. 조선 후기에는 왕족이나 왕의 친척이 농민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나주평야지역에서도 궁삼면이 부당하게 경선궁의 궁장토에 포함되었다. 궁삼면이 경선궁장토에 속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농민들이 京邸吏 全聖暢의 불법적인 수탈에 맞서며 고등재판소로부터 궁삼면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정당한 민유지인 궁삼면이 경선궁장토로 편입된 까닭은 부패한 경저리 전성창이 경선궁의 주인인 순빈 엄씨의 사촌 金永達에게 궁삼면 소유문서를 매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경선궁에서는 문서를 근거로 궁삼면의 농민들에게 소작세를 요구하였고, 농민들은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소작세 납부를 거부하였다. 이에 김영규는 군졸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탄압하였다. 결국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긴 것이다. 이후 1909년 동척이 설립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토지 수탈 대상은 궁삼면의 토지였다. 동척에서는 토지매수반을 영산포에 파견하여, 은밀히 경선궁에 접근한 뒤, 농민들의 소송을 막아주는 대가로 궁장토를 매매하라고 요구하였다. 경선궁에서는 암묵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동척은 헐값에 경선궁으로부터 궁장토와 그 외의 토지까지 사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약탈행위에 분개한 농민들의 소송을 방해하고 헌병을 동원해 농민들을 탄압하고 소작료를 받아냈다. 이 사례와 같이 동척을 위시한 일제는 농민과 왕족 사이의 토지 갈등에 개입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고, 동시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거리끼지 않았다.⁶⁾ 그리고 이렇게 매입한 토지에 일본에서 이민 온 농민들을 정착시켜 토지 지배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⁷⁾

1910년대 이후, 일본인들은 평야지역의 질 좋은 토지를 거의 차지하였고,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산간지역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 동척에서 토지를 조선인에게 분배하기 시작한다. 문화통치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그러나 기만적인 토지수탈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궁삼면의 경우, 농민들은 소유권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 小作料不納同盟을 벌였는데, 시위도중 군수를 포위하여 위협하기도 하였고,⁸⁾ 面民代表가 동경으로 건너가 본점을 옮긴 동척에 직접 탄원하기도 하였다.⁹⁾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자, 동척에서는 무마책으로 토지분배를 실행하였다. 하지만 토지분배 정책은 매우 기만적이었다. 정착 조선인에게 나누어준 토지는 자작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

6) 이규수, 2000,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토지소유관계의 변동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집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 1~37

7) 장석흥, 앞의 논문, p. 57.

8) 「羅州土地係爭事件◇ 婦女三千名」, 『東亞日報』, 1925년 12월 1일

9) 「最後로談判코저 面民代表渡日」, 『東亞日報』, 1925년 12월 16일

족한 양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인에게 나누어준 토지는 일본인에게 나누어준 토지와는 다르게 더 많은 소작료를 부과하였으며, 소작료불납동맹에 참여해 내지 않는 소작료를 내야만 토지를 분배한다는 단서조건까지 달아놓았다. 오히려 토지를 분양받아 부채가 더욱 쌓일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 농민들은 부채를 갚기 위해 일본인에게 다시 토지를 팔아넘겨야 했다. 따라서 일제의 토지 수탈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¹⁰⁾

(3) 일본인의 流通過程 獨占과 일본 企業의 진출

일본인들은 영산포 시장의 流通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영산포가 호남평야와 목포간의 교역을 중계하는 수탈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전남의 8개 군 및 그 외 지역의 4개 군에서 산출된 내륙 산물은 영산포에 모두 모여 목포항으로 운반되었다. 따라서 화물집산지인 영산포의 상권은 주된 이용집단인 일본인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일본의 대상인들은 조선의 농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외래상품 및 공산품의 수입을 독점하면서 식민자본을 확대해 나갔다. 가장 비중이 큰 수탈 품목은 미곡과 면화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곡은 내지행상 시기부터 집중 수탈의 대상이었으나 일본인들이 영산포에 상주하며 토지 지배를 강화하고 산물의 유통까지 장악하면서 미곡 수탈 더욱 심화되었다. 곡물검사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는 미곡 거래를 영산포 시장에 국한시켜 미곡을 수탈하기가 더욱 용이해졌다. 시장이 발전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일본인들은 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들은 식민자본을 바탕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10년대 말부터 일본의 企業들이 영산포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정확히 말해, 여러 일본출신 기업들이 영산포에 진출하였으며, 한편 주식회사의 형태로 영산포에 기업들이 생겨났다. 그중 생산회사, 유통회사, 농사회사 등이 영산포에 본점을 두거나 지점을 두어 주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회사들이 토지 지배를 강화해 나가면서 소작농들은 점차 농업노동자로 더욱 전락되었다. 토지 지배가 단순 개인에서 점차 기업 중심의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1920년대에 이르러 영산포에는 농업회사 이외에도 全南電氣株式會社같은 전기 회사 등, 보다 직접적인 식민산업을 노리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타 지역에 걸쳐 식민사업을 하는 조선식산주식회사 같은 거대기업이 영산포에 들어왔다. 기존의 영산포의 일본 기업들의 자본 규모가 10~30만원이라면 조선식산주식회사의 자본규모는 156만원에 달했다. 금융거래 또한 나주에 비해 4배 가까이

10) 장석흥, 앞의 논문, pp. 66~67..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활발하였다. 이 또한 일본 기업이 영산포에서 식민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¹¹⁾

당시 일본인의 토지 지배 상황과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영산포 진출을 고려해보았을 때, 일제강점기 영산포의 경제권이 소수의 일본인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조선인의 지위, 저항

대지주이자 회사의 간부인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은 소작인, 노동자, 영세 상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불만은 1920년대 일제의 문화통치정책의 틈을 통하여, 궁삼면 소유권투쟁, 동산농장 소작료불납동맹, 영산포자유노동자조합의 설립 등 많은 모습을 통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일제의 이간질과 일본인 농장의 강압 또는 일제의 철저한 탄압으로 봉쇄되었으며, 식민지배는 더욱 더 심화되었다.

심지어 도시구조에서도 조선과 일본의 차별적 관계가 드러났다. 당시 일본인의 주 거주지역과 조선인의 주 거주공간은 서로 나뉘어져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토지를 수탈하여 조선인을 한쪽으로 밀어낸 뒤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만들었다. 도시의 기본적 골자는 도로이다. 말 그대로 가로구조가 그 도시의 구조를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도시구조를 보면 일본인 거주지역은 근대적 격자형의 가로 구조로 도시를 구성하였다. 격자형 구조의 경우는 도로를 정비하기 편하고 공간을 활용하기 편하다. 또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근대적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조선인 거주지역은 무질서하고 전근대적인 거주지역 형태를 갖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는데, 그 중에서 큰 도시는 부로 개편하였다. 당시 목포도 일찍이 개항장으로 열렸기 때문에 부가 되었다. 그 부 내부에는 행정에 대하여 시민이 참가하여 자치하는 형태의 부협의회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부협의회는 경우에는 제한적이지만 투표를 통해서 그 의원을 뽑았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인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인 거주지역의 부협의회원의 선출에는 직선제를 채택한 반면에 조선인 거주지역의 도평의회원이나 면협의회원의 선출의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로 운영하지 않고 총독부의 임명제로 유지하였다. 예외적으로 일본인이 많은 거주지역의 도평의회원이나 면협의회원의 선출의 경우에는 직선제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우에는 선거에 관해서도 서로 차별을 두어서 조선인에 대한 정치참여를 제한하였다. 게다가 정치에 참여할

11) 장석흥, 앞의 논문, pp. 68~73.

수 있는 조선인은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에 빌붙은 친일 세력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2. 영산포 시가지 형성의 역사와 주요 근대건축물의 특징

(1) 영산포 시가지 형성의 역사

본래 조선말까지도 전남 교역의 중심지는 영산포가 아닌 나주였다. 그러나 목포가 개항된 이후로 미곡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의 영산포로의 이주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00년대 초까지 일본인의 토지 소유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들 일본인 이주민은 토양이 척박해서 그동안 한국인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강 근처의 저습지나 황무지에 터를 잡았다. 그러나 습하지만 강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일본인 이주민은 이전까지 방치되었던 강 근처의 길을 새로 정비하고 강변로를 중심으로 하여 시장을 개발해나갔다. 포구의 개발과 더불어, 1904년부터는 일본인 상인에 의해서 영산포와 목포를 잇는 서양식 동력선이 운행되었고 이는 두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이로써 영산포는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 취락을 연결하는 수운 교통의 핵심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이르러서 영산포에 최초로 장시(場市)가 출현했다.

1900년대부터는 영산포 최초의 상점가라고 할 수 있는 영산강변의 은좌(銀坐)거리를 거점으로 하여 우편소, 영산포 일본인회, 일본인 소학교, 헌병분대, 동공은행, 동양척식회사 분점, 종교시설 등이 설립됐으며, 기존의 양철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대체한 일본인의 일반 주거 저택 또한 빠른 수로 증가했다. 이처럼 영산포 내 일본인 이민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은 자체적으로 복권 판매 등의 수입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도시 정비 계획에 착수했다. 1909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도시 정비 계획에는 격자형 도로망 구성, 신작로 설치, 기존 도로 확장, 개폐식 다리 건설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영산포 곳곳을 잇는 넓고 수직적인 도로가 다수 건설됨에 따라서 영산포의 상권은 기존의 강변 근처에 자리 잡았던 은좌 거리를 벗어나서 점점 더 내륙 쪽의 도로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1914년의 호남선 개통과 철도 교통의 발달, 그리고 1970년대의 불균형 지역 발전 등으로 인해서 영산포의 상권은 쇠락하기에 이르렀으나, 1910년대에 일본인 이주민에 의해 형성되었던 옛 시가지는 아직도 이 지역의 중심가에 남아서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영산포는 식민 치하에서 일본인 이주민들이 제국주의 수탈의 거점으로 삼고자 했던 한반도 내 일본식 도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두고 김경수는 ‘영산포는 1910년대에 일본인이 조성한 상업도시’가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¹²⁾

(2) 영산포 시가지 근대 건축물의 특징

* 제국주의 수탈적 의도

첫째로, 우편소는 당시 영산강 지역 내 최대의 곡물 산지였던 영산포의 미곡 시세를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목포의 일본 상인과 빠르게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또한 나주읍에 나주신사와 일본식 불교 사원이 새로 건립된 것과 유사하게 영산포에도 이러한 종교시설들이 들어섰는데, 여기에는 일본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포교 외에도 일본 기업이나 자본에 적대적인 한국인을 새로이 포섭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조선의 관아로 사용되던 건물을 새로 개조하여 헌병분대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의병 운동으로부터 일본인 이주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였다.

* 목조건물

영산포의 옛 시가지 중 전체 건축물의 57% 가까이가 일제시대에 건설되었으며, 이 중 목조 건축이 70%를 넘는다. 이러한 목조 건물의 다수가 일본식 목조 건물의 형태를 모방 혹은 변형한 형태라는 점에서 영산포 내 근대건축물의 대다수가 식민 치하에서 건설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위 일본식 건축물의 형태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일본 도시 내 상인들의 주택을 모방한 마찌야 유형, 팔작지붕과 2층의 수많은 유리창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 그리고 붉은 벽돌을 사용해서 일본의 건축양식과 서양의 건축양식을 절충시킨 고전양식 등이 그것이다.¹³⁾ 시간이 지나면서, 영산포에는 중계상인들의 저택 유형인 마찌야 유형의 건축물이 주로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의 나주읍성과는 대비되는 형태의 근대적 시가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¹⁴⁾

3. 동북아시아의 개항과 목포

동북아시아 주요 개항장들은 모두 열강들의 요구에 따라 개항하게 되었다. 상하이는 중국이 영국과 벌인 아편전쟁에 패배한 후 남경조약을 맺고 1843년 중국의

12) 김경수, 2001, 「榮山江 流域의 景觀變化 研究 : 榮山江 市街地 形成과 干潟地 開墾을 中心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pp.16~39.

13) 김흥기, 2006, 「나주시 옛 영산포 시가지 가로공간의 변화와 건축물 특성」,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2 No.8, 대학건축학회, pp.49~51.

14) 안국진, 2000, 「1900-1945년 나주시 중·소규모 韓式商街와 日式商街의 변천 비교연구 : 나주시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p.133.

주요 통상항구로 개방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페리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무력시위를 하자 이에 굴복하여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맺고 나라를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는 1859년 개항장이 되어 외국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인천은 일본의 요구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883년 개항장이 되어 외래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¹⁵⁾

앞서 말한 개항장들과 목포의 개항과정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개항장들이 외세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항했다면 목포는 나름 자주적으로 개항을 한 개항장 중 하나였다. 비교적 자주적으로 개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목포의 개항 목적 중 하나가 일본의 러시아 견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청일 전쟁 후 독점적 거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고 목포를 독점적 거류지로 삼아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계획을 파악한 조선과 러시아의 반대로 목포는 자주적으로 개항할 수 있었고 비교적 다른 개항장에 비해 외세의 영향력을 적게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목포에서의 일본인의 수도 1898년에서 1902년까지는 900명 전후에서 멈춰 있었고 도시공간의 기본형태도 조선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었다.¹⁷⁾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목포에서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문제는 다른 개항장에 비해 최대한 규제하려 했다. 또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매립에 의한 토지 경작 또한 법적으로 규제했었다. 하지만 러일전쟁 패배 후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의 발표에 따라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거류지 내외를 불문하고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목포는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경태, 1994, 『한국근대 경제사 연구-개항기의 米穀貿易·放穀·商權 문제』 창비신서 131, 창작과 비평사
- 장석흥, 1990, 「일제하 영산포 식민기지의 형성」, 『한국학보』 58, 일지사.
- 이규수, 2000,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토지소유관계의 변동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집적」,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東亞日報』1925年 12月 1日, 1925年 12月 16日, 1928年 06月 10日
- 구글 지도, 목포-영산포

1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6, 개관60주년기념 특별전 都市紀行 - 상하이, 요코하마 그리고 인천(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6) p.16

16) 토쿠마 하지메, 2010, 「개항기 목포 이주 일본인의 도시 건설과 도시 생활」, 전남대학교, pp.4~5

17) 고석규, 2004,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 출판부, p.80

- 김경수, 2001, 「榮山江 流域의 景觀變化 研究 : 榮山江 市街地 形成과 干潟地 開墾을 中心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 안국진, 2000, 「1900-1945년 나주시 중·소규모 韓式商街와 日式商街의 변천 비교연구 : 나주시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 김흥기, 2006, 「나주시 옛 영산포 시가지 가로공간의 변화와 건축물 특성」,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2 No.8』, 대학건축학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6, 개관60주년기념 특별전 都市紀行 - 상하이, 요코하마 그리고 인천(인천광역시립박물관)
- 토쿠마 하지메, 2010, 「개항기 목포 이주 일본인의 도시 건설과 도시 생활」, 전남대학교
- 고석규, 2004,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 출판부

II. 신촌리 고분군과 마한 사회

2조: 전세용, 김형근, 박해린, 염지현, 정동원

1. 신촌리 고분군

(1) 신촌리 고분군 소개

新村里古墳群은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산 41에 위치한 甕棺墓群으로 사적 제 77호에 지정되어 있다. 신촌리 고분군은 4~5세기 영산강 유역 고분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신촌리 고분군의 옹관묘 양식이 다른 중심의 묘제에 종속되거나 부수되어 쓰인 북방 지역과는 달리, 그것이 고분 그 자체로 크게 발전한 것으로 영산강 주변 지역 고유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촌리 고분군은 1917년에 처음으로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조사를 통해 모두 9기의 고분이 보고되었다. 대형 옹관 고분은 AD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크게 유행하였는데, 3세기경에는 옹관의 절반을 지하에 묻는 반지하식이었으나, 4세기부터는 지상식으로 발전하며 분구의 규모가 훨씬 대형화되어 40~50m에 이른다. 한편 5세기 말에는 대형 옹관 고분이 쇠퇴하고 横穴式 石室墳, 前方後圓墳이 나타난다.

이후 고분군들은 발전 과정을 거치며 분형 등 여러 면에서 변화를 보이는데, 신촌리 고분군의 조영 시기에 이르러 특히 현저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신촌리 고분군에는 9호분과 같이 5세기 말로 추정되는 것이 섞여 있지만, 반남의 고분군들 가운데서 연대 상으로 중간에 해당되며 중심 연대는 5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신촌리 고분군의 분구 형태는 원형과 방형, 사다리꼴형, 長鼓形 등으로 다양한데, 특히 6호분은 사다리꼴 2개가 이어져 장고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최근 이루어진 4·5·6호분의 정비복원 과정에서 모두 분구 주변에 主構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나머지 고분들도 주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인멸된 것으로 알려진 7·8호분도 주구 조사를 통해 규모와 평면 형태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촌리 고분들의 규모는 길이 10.5m(4호분)에서 35m 내외(9호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내부 매장시설은 대부분 여러 개의 옹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고분별, 그리고 동일 고분 내 각 옹관별 부장품에 차등이 보이며 금동관 등의 사치품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 관의 사용자들의 신분이 관마다 각각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집단 내의 계급의 차별화와, 동시에 영산강 유역 내 집단 간에서도 세력의 고하가 나누어져, 반남을 기반으로 어떤 한 집단이 다른 부족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반남을 百濟의 세력 확장에 밀려 이동한 馬韓 目支國의 마지막 근거지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아홉 기의 고분 중 9호분이 고분군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크기로 보나 출토품으로 보나 단연 중요하다. 方大形으로 규모 30×27m로 고분군 중에서 방대형 분구가 가장 큰 이 고분은 1997년부터 1818년, 1999년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되었다. 9호분의 정상부에는 상하 2중으로 옹관이 무려 12기가 출토되었고, 甲冑과 을관에서는 겨문거리인 環頭大刀 金銅冠, 철손칼 등이 출토되었다.

(2) 신촌리 고분군의 특징

신촌리 고분군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신촌리 6호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방후원분의 형태를 보이는 분묘들과, 9호분과 다른 분묘들에서 발굴된 부장품을 꼽을 수 있다.

신촌리 6호분은 출토된 유물보다도 그 봉분의 형태가 4~6세기 일본에서 유행한 전방후원분을 닮아서 비교적 최근까지 학계의 주목을 받는 무덤이었으나, 1997년 정비복원작업 당시, 일본 전방후원분과의 비교 조사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일본의 전방후원분이 원형과 방형의 분구가 붙어있어 마치 열쇠구멍 모양과 비슷하다면, 신촌리 6호분은 2개의 사다리꼴 분구가 단면을 서로 맞대고 있는 리본 형태를 띠었기 때문이다.¹⁸⁾

한편, 9호분과 다른 분묘들에서 출토된 다양한 부장품을 통해 우리는 마한 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9호분에서는 32개의 원통형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토기는 영산강 유역 대형고분에서 제일 오래된 토기이며, 또한 지금까지 순수한 옹관고분에서 출토된 최초의 예이다. 이러한 9호분의 원통형토기는 일본 고분시대의 토기인 圓筒埴輪(원통 하니와)와 유사하여 일본이 영산강 일대에 문화를 전파해 주었다는 주장이 등장했지만, 일본열도의 하니와와는 기형, 제작수법, 정면수법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을관에서 출토된 金銅製冠帽는 영산강 일대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금동제관모의 기본 형태는 신라 금관과 같으나 머리띠에 꽂은 장식이 신라 관의 ‘山’자 모양이 아닌 복잡한 꽃잎 모양을 하고 있어, 양식상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금동관의 주인은 당시 이곳을 지배하던 세력의 최고 지도자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다만 이 금동관이 현지의 토착 세력에 의해 제작된 것인지 백제로부터 하사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18) 연민수, 2011, 『고고학사전-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국립문화재연구소.

2. 마한 사회의 구조와 성격

(1) 마한의 위치

마한 및 삼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三國志』, 『後漢書』에 따르면 마한은 서쪽, 변·진한은 동쪽에 있다고 하여, 마한은 한강 이남과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 분포해 있었다고 설정할 수 있다.¹⁹⁾ 또한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이었던 고인돌의 분포로 미루어 보아 마한 사회 중심지의 위치를 파악해 볼 수도 있다. 영산강 일대에는 2만여 개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청동기 시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화순, 영암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초대형 고인돌들과 함께 발견된 세형동검, 청동기 거푸집 등은 이 지역 지배자의 세력이 컸음을 보여준다. 영산강 일대에 발전했던 소국들은 북방 유 이민에 의해 세워졌다고보다는 토착민들의 국가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마한이 백제와 달리 독특한 옹관묘의 형태로 고인돌을 세웠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²⁰⁾

(2) 마한 사회의 구성

마한 사회는 聯盟王國 체제까지 발전했던 사회였다. 따라서 ‘마한’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연맹국의 내부에는 크고 작은 여러 城邑國家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성읍 국가들의 기반은 邑落이라 불린 부락공동체였는데, 이들 읍락은 크기 및 왕국과의 관계에 따라 國邑과 別邑등으로 구별되었다. 국읍의 경우에는 성읍국가의 수도와 같이 기능하는 큰 읍락으로서, 하나의 국읍이 곧 성읍국가인 경우도 있었다.

반면 한 성읍국가가 그 세력을 확대하며 주위의 다른 읍락들을 복속시킨 경우, 새로이 편입된 읍락들은 그 독립성에 따라 별읍으로 성립되기도 하고, 그대로 읍락으로 남기도 하였다. 즉, 주위의 더 큰 성읍국가에 복속되었으나 완전히 편입되지는 않고 祭儀를 따로 지내는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읍락의 경우에는, 성읍국가 내의 별읍으로서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읍과 별읍 등의 읍락들을 기반으로 성립된 크고 작은 성읍국가들이 연맹 왕국을 이루는 주체들이었다.²¹⁾

마한 연맹 왕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성읍국가들이 50여 개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삼국지』의 <韓傳> 및 <弁韓傳>에 따르면, 마한을 포함한 삼한 사회에 존재했던 성읍국가들의 규모는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해, ‘성읍국가’라는 동급의 단위로 고려하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마한 사회의 맹주국이었던

19) 김두진, 1990, 「마한사회의 구조와 성격」, 『마한 백제문화』 12, p.77.

20) 조용욱, 2011, 『역사공간,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 - 영산강문화권』, pp.248~249.

21) 김두진, 앞의 논문, p.78~80.

목지국은 그 크기가 만 여 호에 이르렀으나, 변한이나 진한의 소국들은 몇 백 여 호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크기와 영향력에 있어 다른 작은 성읍국가들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 이들을 小聯盟國 이라는 용어로 따로이 칭하게 되었다.

마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연맹국에 이르는 단위가 여럿 존재했는데, 소연맹국들은 각자가 가진 독립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서로 연맹 왕실의 왕권을 두고 경쟁하는 체제라고 보아도 될 정도였다. 그렇기에 마한이 연맹국이라고는 하나 고구려나 부여 사회 내부의 국가들이 이루었던 연맹만큼 강력한 것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²²⁾

〈참고문헌〉

- 연민수, 2011, 『고고학사전-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두진, 1990, 「마한사회의 구조와 성격」, 『마한 백제문화』 12
- 조용욱, 2011, 『역사공간,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 - 영산강문화권』

22) 위의 논문, p.80~82.

III. 호국불교와 항일 의병으로 본 대흥사

3조: 장원, 박다솔, 신혜진, 이우영, 전창현

1. 대흥사의 특징과 역사

두륜산 대흥사는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에 위치한 절이다. 아마도 대흥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큼 그다지 특별한 절은 아닌 듯싶다. 그 절의 이름도 대흥사 혹은 대둔사로 혼용되어 불릴 만큼, 마땅히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사찰이 아니다.

하지만 대흥사는 우리 역사 속에서 호국이라는 정신과 관련하여 다른 사찰들과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호국불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산대사와, 구한말 호남지역 항일 의병이 바로 이 대흥사와 모두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두 역사적인 사건 모두 대흥사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거나 중심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일이라는 측면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측면에서 약 400년의 간격을 두고 있는 두 역사적 사실을, 대흥사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라고 본다.

대흥사는 우리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두륜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자리한 사찰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22교구의 본사이다. 현재 해남, 목포, 영암, 무안, 신안, 진도, 완도, 강진, 광주 등 9개 시군의 말사를 관할하며, 서·남해 지역 사찰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13 대종사 가운데 한 분인 초의선사로 인해 대흥사는 우리나라 茶문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두륜산을 대둔산이라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원래 사찰명은 대둔사였으나, 근대 초기에 대흥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넓은 산간분지에 위치한 대흥사는 크게 남원과 북원 그리고 별원의(표충사, 대광명전, 박물관) 3구역으로 나뉘어져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북원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전, 산신각, 침계루, 백설당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원에는 천불전을 중심으로 용화당, 봉향각, 가허루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남원 뒤쪽으로 멀리 떨어져서 사명대사의 사당인 표충사 구역과 대광명전 구역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대흥사는 호국불교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는 도량이다. 서산대사의 구국 정신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지금 경내에 자리하고 있는 표충사는 개인의 수행에 앞서 국가의 안위를 보다 우선시했던 한국불교의 전통을 대표하는 전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흥사 경내와 산내 암자에는 중요한 정보문화재가 상당수 존재한다.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국보 제308호), 탑산사 동종(보물 제88호), 북미륵암 삼층석탑(보물 제301호), 응진전 삼층석탑(보물 제320호), 서산대사 부도(보물 제1347호), 서산대사 유물(보물 제1357호), 천불전(보물 제1807호), 천불상(전남유형문화재 제52호), 용화당(전남유형문화재 제93호), 대광명전(전남유형문화재 제94호), 관음보살도(전남유형문화재 제179호), 표충사(전남기념물 제19호) 등의 지정문화재와 대흥사 도량 전체가 사적명승 제9호로 지정되어 대흥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일찍이 서산대사가 자신의 의발을 이곳에 보관한 이후, 대흥사는 한국불교의 종통이 이어지는 곳으로 한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도량으로 변모하였다. 즉 풍담 스님으로부터 초의 스님에 이르기까지 13분의 대종사가 배출되었으며, 만화 스님으로부터 범해 스님에 이르기까지 13분의 대강사가 이곳에서 배출되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불교계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라고 하는 분위기를 띄진 못했지만 각 사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력과목 정비를 통한 승려 교육체계가 성립되었고 염불신앙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또한 현존하는 많은 사원의 전각들이 조선 후기에 재건되었으며 70종이 넘는 승려 문집이 발견되었다.

조선후기 불교계의 자생적인 활동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호남지역이다. 17세기 이후 호남지역에 다수의 고승들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주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찰이 대흥사다. 대흥사는 임진왜란 이후 청허계의 편양파와 소요파가 정착한 곳으로 많은 훌륭한 승려들이 배출되었다.

18세기 심심논쟁과 19세기 선논쟁의 중심지였던 대흥사는 그야말로 조선후기에 가장 역동적인 사찰이었다. 특히 18세기 말 서산대사의 충의를 기리는 표충사로 지정되고 19세기 전반에는 <대둔사지>를 편찬하면서 대흥사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²³⁾

2. 서산대사와 대흥사

임란 당시 승병들을 이끈 것으로 익히 알고 있는 서산대사는 完山 崔氏로, 이름은 汝信, 아명은 雲鶴, 자는 玄應, 호는 淸虛이다. 별호는 白華道人 또는 西山大師·楓岳山人·頭流山人·妙香山人·曹溪退隱·病老 등이고 법명은 휴정이다.

23) 이 부분은 이종수, 2011, 「조선후기 대둔사(大菴寺) 현창 운동과 그 의미」, 『동국사학』 50, 동국대학교 사학회, pp.173~200을 주로 참고하였음.

「계송」, 「임종계」 등의 시를 쓴 것처럼 문학적 소양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는 임진왜란 때 승군활동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승군활동은 유교를 중시하는 조선시대에서 불교의 영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조선 초의 억불정책에 이어 15세기 초 연산군, 중종 대에 경국대전의 도승조 삭제와 같은 실질적 폐불 상태에 놓이면서 활로를 찾지 못했던 불교계는 16세기 중반 명종 대에 기사회생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명종 5년에 문정왕후에 의해 선교양 종이 다시 세워지면서 다시 인적 재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²⁴⁾ 그러나 후에 선종 판사를 맡았던 대승이 유배되는 등 불교계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명종의 뒤를 이은 선조 대에는 다수의 유교 명현이 등장하고 사림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봉당 정치가 시작되는 등 조선이 본격적인 유교사회로 접어든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 추세를 반영하여 불교에 대한 정치적인 방임이 대세가 되었다. 이 시기에 서산대사와 고승들은 학습과 저술, 교육에 매진하였고, 신앙 활동과 각종 불사를 주도하였으며 유명한 사대부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 하지만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서산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²⁵⁾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북쪽의 의주까지 피난을 간 선조는 7월이 되어서야 승군을 모집하면서 묘향산에 있던 서산대사에게 八道十六宗禪敎都摠攝의 직책을 수여하여 승군 동원과 통솔을 담당하게 하였다. 당시 선조는 행재소에 서산대사를 불러 국가의 위기를 맞아 널리 구제하기를 청하였고, 서산대사는 “성상의 은혜와 훈육을 받았는데 어찌 한 번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목숨을 바쳐 충심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²⁶⁾ 국왕의 명을 받은 서산대사는 곧바로 법흥사에서 전국 사찰에 격문을 띄워 5천여 명의 승군을 소집하였다.²⁷⁾ 이렇듯 서산대사가 승군의 봉기를 유도하는 격문을 돌리자 전국적으로 호응하였다.

서산대사는 팔도도총섭으로 승군의 수장역할을 했고 다음 해 평양성과 행주산성 전투에 직접 참전해 큰 전공을 세우는 등 국왕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또한 1593년 3월 서울 수복 후 10월 1일 선조가 환도할 때 호종한 것도 서산대사가 인솔한 100명의 승군이였다. 이후 의승군은 군량의 보급, 산성축조와 수호 임무 등에 주력하였다.

후에 이러한 공로로 서산대사는 높은 관직을 얻었으나 1594년에 수제자인 惟政에게 승병을 맡기고 묘향산 원적암에서 여생을 보냈다. 1604년 1월 23일에 서산대사는 입적하면서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三災不入之處)으로 만년동

24) 황인규, 2013, 「임진왜란 의승군 봉기와 전란의 충격」, 『한국불교사연구』 2, 한국불교사연구소, p.12.

25) 김용태, 2012,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 『보조사상』, p. 2.

26) 위의 논문, p.54..

27) 『韓國佛敎全書』 券2 8, 동국대학교 출판부, pp.254~255.

안 훼손되지 않는 땅(萬年不毀之地)”이라 하여 그의 의발을 이곳 대흥사에 보관했다. 그 유품이 바로 대흥사에 있는 서산대사 유물들이다. 서산대사가 입적한 후 180년이 지난 1788년(정조 12) 대흥사에는 서산대사와 유정, 처영을 모시는 표충사가 건립되었다.

3. 항일 의병의 대흥사 심적암 전투

구한말 함평, 나주, 장성, 광주 등 주로 내륙지방에서 전개되던 의병항쟁은 그 후 점차 확산되어 1908년 말에서 1909년 초에는 전남의 도서지방으로 확대된다. 이렇듯 의병봉기가 도서지방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당시 일본의 국권침탈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운동과 함께 「완도삼림문제」와 「어업법」시행이라는 지역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다 비슷한 시기에 도서 지방으로 유배 온 의병관련자들이 탈출하여 의병활동에 가담함으로써 이 지역 의병 활동은 더욱 활기치게 전개되었다.

1909년 봄 이후 의병부대를 지도한 사람들은 유배수들과 토착주민들이었다. 유배수인 황준성, 추기엽, 강성택, 그리고 해남 출신인 황두일 등이 그들이다. 그리고 대다수 일반 의병들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다가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참가한 도서 연안 주민들이었다. 결국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는 의병 출신 유배수들의 지도력과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호응에 힘입어 의병봉기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전남 각 지역에서 의병부대의 결성이 확대되자, 일본은 이들 의병을 진압하기 위하여 토벌작전을 펼친다. 이 작전의 하나로 해안지역에 경비선을 배치하였으며, 이 소식에 놀란 도서지역 의병들의 상당수가 내륙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완도·해남에서 활동하던 황준성, 추기엽, 강성택 등이 이끄는 의병들과 일본군 헌병들 간에 7월 7일 해남 북평면 동해리 성도암에서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졌다. 무기와 인원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었던 의병들은 두륜산을 은신처로 삼아 곳곳에서 투쟁을 전개하지만 중과부적으로 일본군에 밀려 송지면미항사로 후퇴하게 된다.

미항사에서 재집결한 추기엽 장군과 황두일, 황준성, 이덕삼, 강성택 등 의병장들은 일본군의 토벌작전에 대처하기 위해 황준성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는 등 전열을 정비한다. 대장으로 추대된 황준성은 강성택, 추기엽 등의 각 부장과 함께 60~70명의 부하를 인솔하고 각각 총기, 또는 칼을 휴대한 채 미항사를 거쳐 두륜산에 이른다. 황준성 의병부대는 두륜산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친일세력을 단죄하여 항일의 기치를 드높인다. 의병부대는 미항사 부근에서 일진회원인 박원재(당시 43세)와 진태진(당시 30세)를 붙잡아 현산면 초평리에서 총살하였던 것이다. 그런 후에 현산면 읍호리 이재범 댁에서 돈 50냥과 동면 덕흥리 김인옥 댁에서 내놓

은 소 한 마리를 끌고 대흥사 심적암으로 이동하였다. 의병 활동의 거점을 심적암에 정한 것은 무기와 훈련이 부족한 의병으로 우수한 화력을 갖춘 정규 일본군대와 싸우기에는 산악전이 유리할 것이라는 황준성 대장의 판단 때문이었다.

7월 8일 심적암에 도착한 황준성 의병부대는 오랫동안 쌓였던 피로도 풀고 의병들의 사기도 올리기 위해 술과 함께 현산면에서 끌고 온 소 한 마리를 안주 삼아 의병들과 함께 먹으면서 전략을 모의한 후 잠자리에 들면서 의병 30명을 풀어 보초를 세우는 등 일본 헌병수비대의 기습에 대비하였다. 이날 밤 해남수비대장 요시하라 대위는 수비대 22명, 경찰관 3명, 헌병 4명을 이끌고 대흥사로 출동했다. 자정이 지나 새벽이 되도록 아무런 이상이 없자 초조와 긴장으로 지키던 의병들이 새벽녘에 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철수하는 의병 뒤를 따라간 일본 수비대가 새벽 4시경에 심적암을 포위하여 공격을 퍼부었다. 일본수비대의 공격으로 황준성 의병부대는 전사자 24명, 포로 8명과 화승총 47개, 군도 5개를 빼앗기는 피해를 입은 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당시 전투현장에 참가했던 응송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침허당 스님 등 심적암의 스님 다섯 분도 이곳에서 일본 수비대의 총에 맞고 죽었다고 한다.

심적암에서 일본 수비대의 포위 공격을 무사히 빠져 나온 황준성 대장은 현산면 읍호리 이참판 댁으로 피신한 후에 보성, 순천 등지로 피해 다니다가, 그 해 12월 7일에 해남경찰서에 자수하여 1910년 4월 22일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교수형을 당했다. 추기업은 대흥사 패전의 책임을 물어 부하들에게 피살되었다. 의병장 중 유일한 해남 출신이었던 황두일은 ‘대토벌작전’ 실시 직전에 부하일부와 같이 자수하였는데, 이에 따라 그의 부하들이 대거 자수한 듯하다. 다만 주도 인물 가운데 강성택만이 유일하게 체포를 면하였던 것 같다.

심적암에서 살상된 24명의 의병과 5명의 스님 등의 시신은 대흥사 종무소 주관으로 삼인일조로 심적암에서 현무교(지금의 장춘교)건너편 부근, 지금의 매표소 뒤편까지 옮기어져 두 곳에 나누어 봉분도 없이 집단으로 매장하였다고 한다. 주민들에 의하면, 1930년대만 해도 이곳 메주바위 밑에서는 사람의 뼈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 『韓國佛敎全書』 券2 8, 동국대학교출판부
- 이종수, 2011, 「조선후기 대둔사(大菴寺) 현창 운동과 그 의미」, 『동국사학』 50, 동국대학교 사학회
- 김용태, 2012,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 『보조사상』
- 황인규, 2013, 「임진왜란 의승군 봉기와 전란의 충격」, 『한국불교사연구』 2, 한국불교사연구소

IV. 녹우당- 윤선도와 윤두서, 그리고 정쟁

8조: 이영기, 황운배, 공민제

1. 녹우당

녹우당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에 위치한 15세기, 조선 전기에 건축된 건물이다. 해남윤씨의 종가로서 윤선도의 4대 조부인 효정(1476~1543)이 연동에 터를 마련하면서 건축하였다. ㄷ자형의 안채 앞에 사랑채를 세워 전체적으로 호남 지방에서는 드물게 보는 ㄱ자형의 폐쇄적인 평면을 이루었다. 주변에는 수목이 많으며, 집 북쪽 숲 사이에 세 채의 사당이 다. 사랑채 한쪽 끝은 바닥 마루를 높여서 누마루와 같이 꾸몄는데 이곳에 올라서면 마을 입구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구례 윤조루 역시 집 전체를 다스리는 사랑채의 격식과 위용이 잘 드러난 집으로 꼽힌다.

‘녹우당’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위의 사랑채에서 비롯되었다. 녹우당이 세워지고 한 세기가 흘렀고 해남 윤씨에서는 윤선도가 태어났다. 윤선도는 대성하여 후일 효종이 되는 봉림 대군의 사부가 되었고, 효종은 즉위 후 어릴 적 스승인 윤선도를 위해 수원에 집을 하사하였다. 효종 사후 윤선도는 고향으로 돌아오며 수원 집의 일부를 해상으로 운송하여 연동으로 가져온다. 그것이 녹우당이라는 이름의 사랑채로서 이후 해남 윤씨 종가를 통틀어서 일컫는 명칭이 된다.²⁸⁾

2. 해남 윤씨

해남 윤씨의 시조는 윤존부로 윤선도의 16대 선조이다. 고려 중엽의 인물로 추정되며 이후 하급 무관직을 세습했다고 한다. 이후 윤선도의 고조인 어초은 윤효정대에 해에 해남 윤씨가 본격적인 상류집안으로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다. 어초은은 아내와의 결혼으로 얻은 부를 바탕으로 집안을 성장시켰고 이는 후대들이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는 윤선도가 잦은 귀향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던 기반이 된다. 윤선도의 시가에서 나타나는 자연이 인간이 생을 위해 투쟁하는 등의 실질적인 공간으로서 그려지지 않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진 근간을 이러한 가문의 부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부와 더불어 윤효정의 아들이자 윤선도의 증조부인 굴정 윤구 대부터 시

28) 김동욱, 2010, 「지방 양반 주택의 성장」,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작된 사림으로서의 활발한 정치활동이 해남 윤씨를 만들어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종종 대의 조광조와 함께한다. 사림으로서 기존 훈구파를 공격하며 개혁을 펼쳐가나 종종 배신 및 훈구파의 반발, 즉 기묘사화를 통해 사림은 좌절되고 만다. 윤구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낙향하여 해남에서 여생을 보낸다. 하지만 그는 높은 학식으로 후에 호남오선생으로 모셔지기까지 한다.

3. 윤선도

윤선도의 증조부인 윤구에게는 윤홍중, 윤의중, 윤공중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인 홍중은 아들이 없었다. 그리하여 윤의중의 둘째 아들을 윤홍중의 양자로 입양하여 대를 잇게 하였는데 둘째 아들인 유기도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 그래서 윤의중의 첫째 아들 유심의 차남을 유기의 아들로 들여 대를 잇게 하였는데 그가 윤선도이다.

윤선도는 어릴 적 소학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의 유년 시절 기록은 상투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윤선도가 정계에 진출하던 시기는 광해군이 집권한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이다. 이때는 이이첨이 이끄는 대북파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윤선도는 병진소라는 상소를 통해 이이첨을 공격한 것이다. 이는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윤선도는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가게 된다. 그는 경원에서 견희요 5수와 우후요 등 시조를 짓기 시작한다. 다음 해 윤선도는 기장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된다. 윤선도는 기장에서 인조반정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인조반정을 통해 윤선도는 귀향에서 풀려나나 서울에서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남해에서 몇 년을 지낸다. 이후 이조판서의 추천으로 윤선도는 봉림 인평 두 대군의 사부로 임명된다. 이후 과거에 급제하여 직책을 가지게 되나 다시 해남으로 귀향가기를 반복한다. 윤선도 51세 때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윤선도는 인조를 보필하기 위해 서울 방면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와중 인조의 항복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대로 뱃머리를 돌려 제주에 가려고하나 그 중간에 남해의 보길도에 정착하게 된다. 정착한 자리의 이름을 부용동이라하고 격자봉 아래 집을 지어 낙서재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는 막대한 재산으로 십이정각 세연정 회수당 석실 등을 짓는다.

그런데 병자호란 당시 윤선도가 왕을 알현하지 않고 내려갔던 것과 처녀를 약탈하였다는 빌미로 윤선도는 다시 한 번 영덕으로 유배가게 된다. 그 이듬해 영덕에서의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와서 본격적인 은거 생활을 시작한다. 그 위치가 부용동과 새로 발견한 금쇄동이다. 이때 금쇄동을 배경으로 윤선도는 여러 시조들을 짓는다. 그 뒤 효종 2년에는 어부사시사를 짓게 된다. 그 다음해 효종의 명으로 예조참의가 되었다가 사직하고 양주 고산에 은거했다. 그곳에서 몽천요를 짓는다.

71세에 오른 벼슬길에서는 동부승지까지 된다. 이후 제1차 예송논쟁에 남인을

대변하여 왕권의 강화를 외친다. 이때 그는 효종이 차자이지만 왕은 일반 사대부가와 다르므로 장자의 대우를 하여 3년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송시열과 서인들의 강대한 반박에 부딪히며 윤선도는 삼수에 유배된다. 풀려난 후 부용동에서 살다가 85세의 나이로 죽게 된다. 남인의 상징적인 인물인 윤선도는 사후에 윤선도졸과 같이 조선왕조실록에 언급이 될 법도 한데, 윤서도의 죽음에 대해서 실록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 이후 윤서도사라고 간략하게 표현된다. 이후 숙종 대에 추증되나 경신환국을 통한 남인의 실각으로 윤선도는 증직과 시호가 추탈된다. 이후 기사환국을 통해 서인의 거두인 송시열이 죽으며 남인의 거두였던 윤선도는 복작된다. 그런데 갑술환국을 통해서 서인이 집권함에 따라서 송시열은 복작되고 윤선도는 다시 추탈된다. 이후 숙종 대에 복작과 추탈을 다시 당하고, 영조 대에 이르러서 윤선도의 직위를 추탈하지 말라는 명이 내려지는데, 그는 영조 치하에 다시 추탈된다. 이후 정조가 복작한다. 이는 남인과 서인의 권력관계를 윤선도와 송시열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윤선도는 인미 의미 예미 등 세 명의 아들과 딸을 낳는데 장자 인미의 아들이 이석인데, 그는 후사를 잇지 못하고 요절한다. 그리하여 이석의 동생인 이후의 넷째 아들 두서가 집안을 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윤두서이다. 윤두서는 외증조가 되어 해남윤씨의 학술적인 가풍을 잇게 된다.²⁹⁾

〈참고문헌〉

- 김동욱, 2010, 「지방 양반 주택의 성장」,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고미숙, 2013, 『윤선도 평전 : 정쟁의 격랑 속에서 강호미학을 꽃피운 조선의 풍류객』 (한겨레출판)

29) 고미숙, 2013, 『윤선도 평전 : 정쟁의 격랑 속에서 강호미학을 꽃피운 조선의 풍류객』 (한겨레출판)

V. 하멜과 17세기 조선

4조: 이종호, 강혜윤, 권구호, 김건실, 홍성현

1. 하멜의 조선 표류 당시의 대외관계

조선의 해안에 머리가 노랑고 장신의 사람들이 표류하게 되었다. 1653년(효종 3년), 제주도에 표류하게 된 하멜 일행은 1666년(현종 7년) 조선을 탈출하기까지 13년 동안 전라도 각지에 흩어져 억류생활을 하게 된다. 당시의 조선 정부는 이들을 이용해 북벌의 기치를 드높이려하였고 동시에 억류를 통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고도 하였다. 조선 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자.

(1) 17세기 조선과 청의 관계

두 차례의 호란으로 조선을 굴복시킨 淸은 중원 정복을 위한 군사적, 경제적인 도움을 조선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했다. 실제로 청은 조선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이를 통해 명칭교체를 이뤄냈으나 조선에 대한 압박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조선을 ‘충순한 藩國’으로 묶어두기 위해 조선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³⁰⁾

이런 청의 다소 강압적인 조선에 대한 외교정책은 효종 대에 이르러 ‘북벌’이라는 급진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게 된다. 효종을 중심으로 송시열과 같은 보수적 인물들이 북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수행하려하였다. 그러나 효종의 죽음으로 북벌은 좌절되고 조선은 청의 영향력 안으로 점점 잠식되어 갔다.

(2) 17세기 조선과 일본의 관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국교를 단절한 채 적성국으로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이 호란을 겪으면서 국토가 황폐화되자 일본을 이를 이용하여 조선과의 국교회복에 나서게 된다. 조선은 북벌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려고 하였고 일본은 이 점을 십분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켰다.

30) 한명기, 2003, 「하멜 漂流 무렵의 조선과 東아시아 : 당시의 朝淸, 朝日關係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p.35

조선도 충분히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으나 호란 이후 황폐해진 국력 때문에 일본이 재침을 할 경우 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내부의 힘든 사정 때문에 나라 밖의 정세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던 조선은 당시의 정확한 국제관계 파악이 힘들었고 네덜란드가 일본의 속국이라는 대마도의 ‘허풍’에도 놀아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³¹⁾ 하멜 일행의 선진 기술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도 호란 이후 힘들어진 자국 경제 회복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은 임란 이후 日本國王使의 上京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경제적, 군사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신의 도성 출입을 허락하면서 새로운 국면의 일본과의 국교를 시작하게 된다.³²⁾

(3) 17세기 동아시아인들의 세계인식

17세기 동아시아 정세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하멜과 같은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유럽 세력과의 만남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16세기부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던 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그들과 교역을 계속하여 나갔으나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폐쇄적 국제관계를 유지하던 조선은 그들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할 여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었다. 새롭게 들어오는 문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던 조선 정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는 하멜 일행의 선진 기술을 제대로 조선의 실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양란을 겪으면서 북과 남에서 침략을 받게 되자 조선 정부는 외국과의 직접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두려움이 하멜 일행을 전라도 각지에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유럽 세력과의 최초의 조우가 허무하게 막을 내려버렸다.

2. 하멜 일행의 조선 체류기

1653년 7월 30일 일본으로 가기 위한 스페르베르(sperwer)호가 대만에서 출항하였다. 이들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임무인 동방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끝내 제주도 남해안에서 배가 난파되고 64

31) 위의 논문, p.36~37

32) 문영규, 2003, 「仁祖代 대일외교의 성격」, 19『한일관계사연구』, p.84 ~ 85

명의 선원 가운데 36명만 살아남았다. 하멜 일행은 포위하고 무장 병사들에게 포위당해 대정현감 권극중과 판관 노정에게 심문을 받았다. 그리고 22일 밤 제주목사 이원진에 앞에 불려갔다. 제주목사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적응을 돕는데 힘썼다. 이때 조선에는 일본으로 가려다 폭풍을 만나 조선에 거주하게 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Weltevree)가 있었는데, 그는 귀화하고 박연이라는 이름을 얻어 조선인으로 살고 있었다. 박연 역시 그들을 돕는데 힘썼다.

곧 일행 전원은 훈련도감 소속의 왕의 호위병으로서 취직되었다. 한국말로 개명된 각자의 성명이 적힌 호패를 받고 왕이 하사한 포복으로 한복을 지어 입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법과 조선 사회에 대한 교육은 박연을 통해 받게 되었다. 박연의 도움으로 하멜 일행은 어느 정도 조선의 환경에 적응을 해가면서 제각기 거처를 구입하여 독자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적응을 하던 중, 청나라 사신이 방문을 하는 일이 생겼고 조정에서는 표류사건을 알리기 꺼려 일행을 일시적으로 감금해놓았다. 그런데 일행 중 2명이 사절단이 통과하는 길목에 나타나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였고 그 둘은 즉석에서 체포, 구금되어 옥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로 나머지 일행의 앞날에도 그림자가 졌다. 조정에서는 중국과의 외교에 차질을 빚을까 염려하였고 결국 일행 전원을 전라도로 유배시키게 되었다.

우수영 소속인 그들은 정기적인 군사 훈련에 참가하고 이따금 기타 부역에도 동원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확한 임무내역이 규정되지 않아 지휘관에 따라 한때는 편하고 한때는 고달픈 것이 반복 되었다. 경제적으로 서울에서의 친위병 위치만은 못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쌀로 생계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멜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제대로 구색을 갖춘 채 살아왔으며 다른 도시로 전출 명령을 받았을 당시 장만한 재산을 고스란히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을 억울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7년 남짓한 병영생활이 힘들었는지 일행 중 11명이 병사했다.

1663년 2월, 하멜 일행은 여수, 순천, 남원 세 개의 읍으로 나뉘어 흩어지는데, 이 중 하멜은 여수로 가는 12명에 포함이 되어있었다. 일행이 탈출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은 1664년으로서 그 당시 지휘관이 일행에게 왜 일본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느냐고 우의적으로 선동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에 자극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1666년 여수에서 고약한 새 지방관이 연거푸 부임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탈출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9월 초, 하멜과 그 동료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낸 조선인을 꺾어 배를 한 척 샀다. 당시 조선인들은 탈주를 도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하멜 일행에 배를 파는 일을 꺼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9월 4일 배를 띄웠고 8일 아침, 일본의 한 섬에 도착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네덜란드 국기

를 흔들며 ‘홀란다’, ‘나가사키’라고 소리쳤다. 하멜과 함께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8명이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668년 7월 20일 하멜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탈출에 가담하지 않았던 (한국 영주를 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도 2년 후 조선 정부의 인도적인 배려로 조선을 떠나 1670년 8월에 고국 땅을 밟게 되었다. 이후 하멜은 13년 28일 동안 조선에 머물며 겪은 일을 책으로 펴냈다. ‘하멜 표류기’가 바로 그것이다. 하멜 표류기는 네덜란드에서 출간되었고 곧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3. 하멜 표류기가 유럽에 미친 영향

『하멜 표류기』는 스페르버르호의 난파 경위와 14년(1653~1666년) 동안 제주도, 한양, 강진, 여수 등을 지나며 겪은 군역(軍役), 감금, 태형(笞刑), 유형, 구결의 풍상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여러 지방마다의 풍속과 사정을 견문한 결과를 상세하게 적고 있다. 특히 부록인 『조선국기(朝鮮國記)』에는 한국의 지리, 풍토, 산물, 경치, 군사, 법속(法俗), 교육, 무역 등에 대하여 실제로 저자의 보고 들은 바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독자의 흥미를 끌고 판촉을 위해 출판사들마다 경쟁을 하다 보니 사실과는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구절들이 군데군데 삽입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악어 등이 등장하여 사람을 먹어치웠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깊지 않았던 서양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최초의 저서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책은 프랑스·영국·독일 등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다투어 번역, 간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1934년 『진단학보』 1~3호에 이병도(李丙燾)박사가 영어본, 프랑스어본을 번역, 전재했다. 그 뒤 『하멜표류기』가 일조각(一潮閣)에서 1954년에 2 간행되었고, 일본에서는 1961년 이쿠타(生田滋)가 『조선유수기 朝鮮幽囚記』라는 제목으로 번역, 간행했다.

한편, 1980년 10월 12일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우호 증진을 위해 각각 1만 달러씩을 출연해 난파상륙 지점으로 추정되는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해안 언덕에 높이 4m, 너비 6.6m의 하멜기념비를 세웠다.

4. 하멜 일행의 표류가 조선에 미친 문물적 영향

(7) 서양식 무기 개발 - 새로운 조총 / 홍이포의 제작

효종실록 효종 7년(1656)7월 갑자조에는 새로운 조총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 이와 하멜 일행의 표류가 관련되었다는 명확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새로운 체제의 조총을 만들었다. 이에 앞서 蠻人이 표류해 와(1653) 그들에게 조총을 얻었는데, 그 체제가 매우 정교하므로 훈국(訓局, 훈련도감)에 명하여 모방해서 그것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³³⁾

여기서 언급된 만인(南蠻人)은 하멜 일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멜 일행이 표착했을 당시에 그들이 조총을 지니고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총을 제작하였음이 드러난다.

홍이포³⁴⁾ 또한 하멜 일행의 표류와 관련이 있다. 사실 하멜 일행이 표착하기 직전인 1652년에 조선은 이미 박연의 주도 하에 홍이포의 제작에 성공하였으나, 중국의 모방품인 홍이포가 아니라, 진짜 네덜란드 대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후의 홍이포 개량에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4 홍이포



그림 5 조총

앞서 언급했던 하멜 일행은 난파선의 물건들과 함께 표착했었다. 이익태의 『지영록(地瀛錄)』에 따르면 하멜 일행의 대·중·소·포 등의 물건을 모두 제주목의 무기고에 유치시키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고, 또 성해응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서는 스페르베르호 난파선의 목록을 기록한 내용 및 무기가 모두 무기고로 옮겨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33) 『효종실록』 7년 7월 갑자조.

34) 명나라 때 네덜란드의 대포를 모방하여 만든 중국식 대포

35) 강진군 하멜캡슐시스템, <http://www.hamel.go.kr/> 참조

(2) 하멜식 담장

강진 병영마을 옛 담장은 일종의 빗살무늬 형식으로 돌을 독특하게 쌓았는데, 하멜 일행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들로부터 배운 네덜란드 건축 방식이라 하여 이것을 ‘하멜식 담쌓기’라고 부른다. 이곳의 돌담은 전체적으로 돌과 흙을 번갈아 쌓은 토석담이다. 하부는 비교적 큰 화강석을, 중단 이후로는 어른 주먹정도의 비교적 작은 돌을 사용하여 쌓아 올렸으며, 담 위에는 기와로 지붕처리를 하였다.

이곳 돌담의 또 다른 특징은 2m나 되는 높이. 병영마을이라는 특성상 병사들이 말을 타고 순시를 돌 때 집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돌담을 높이 쌓았다고 한다. 특히, 병영마을의 돌담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담쌓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맨 아래층은 납작한 돌을 약 15도 정도 눕혀서 촘촘하게 쌓고 흙으로 고정시킨 후, 다음 층은 반대 방향으로 엇갈려 쌓는 일종의 빗살무늬 형식의 돌담이다.³⁶⁾



그림 6 일반적인 한국의 담장



그림 7 하멜식 빗살무늬 담장

(3) 나막신

하멜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시기는 효종에서 현종조(1653-1666년)에 걸친 기간 이었는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부터 나막신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절에 선원들은 나막신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팔았다. 선원들은 어려운 시절을 견디기 위해서 뿐 아니라 탈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다고 추측된다.³⁷⁾ 이로 인해 통나무를 파서 만드는 독특한 형

36) 최경애, 2008, 「남도답사 1번지, 강진 기행」 ① 강진 병영마을, 『중앙일보』, 2008년 6월 26일자.

37) 金文子, 2003 「朝鮮時代 나막신에 對한 研究 -하멜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7 , No.2』 , p.84 참조

태의 네덜란드식 나막신(Klompes)이 전라도 병영,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다.³⁸⁾

(4) 석장승

병영성의 관문인 홍교위에 좌우 나란히 서있던 석장승(벽수)는 병영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전해오던 한 쌍의 돌장승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분실 상태로 흔적도 찾을 길이 없는 기록상의 벽수가 되었다. 오른쪽의 장승에서는 이국적인 형태의 모자와 유난히 큰 코를 발견할 수 있어서 하멜 일행이 체류하던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영향을 받아 제작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³⁹⁾



그림 11 병영성 인근 석장승



그림 12 네덜란드 지역의 전통 의상 및 모자

(5) 종교적 영향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하멜과, 박연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둘이 기독교를 조선의 백성들에게 소개하거나, 선교한 행적은 없다. 심지어 그들에게 성경책 등을 가져왔다는 기록도 없다. 아마 그것은 네덜란드와 교역하고 있던 일본이 기독교를 엄격히 금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나 만약 그 것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조선 또한 기독교를 금하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 기독교 물품들을 없애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박연과 같은 경우에는 훗날 그의 기독교적 행적이 적힌 책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조정에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 굳어지자 기독교적 정신을 전파하는 일종의 선교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⁴⁰⁾

38) 위의 논문, p.85 참조

39) 강진군 하멜캡슐시스템, <http://www.hamel.go.kr/> 참조

40) 金文子, 앞의 논문, P.52.

그러나 하멜 또한 기독교 선교활동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가 조선을 탈출하여 고국으로 돌아간 뒤 쓴 ‘하멜표류기’는 조선의 생활상, 문화양식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유럽에서 굉장한 인기를 보이며 많은 판매량을 보였고 유럽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보고 조선으로 선교활동을 하러 오는 간접적인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을 것이다.⁴¹⁾

〈참고문헌〉

- 지명숙, 2003, 「특집 : 17세기 조선과 서양의 만남 ; 하멜 일행의 한국 체류, 적응 및 이해」, 『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박은봉, 1999, 『한국사 뒷 이야기』, 실천문학사
- 이정현, 2010, 『1666년 9월 4일 - 하멜, 조선탈출 : 조선에서의 13년 28일』, 새가정사
- 한명기, 2003, 「하멜 漂流 무렵의 조선과 東아시아 : 당시의 朝淸, 朝日關係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 문영규, 2003, 「仁祖代 대일외교의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19
- 김현영, 2012, 「16세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 변형과 왜란 전후 조선사회의 변화」, 26『韓國史學史學報』
- 최경애, 2008, 「남도답사 1번지, 강진 기행> ① 강진 병영마을」, 『중앙일보』, 2008년 6월 26일자
- 金文子, 2003 「朝鮮時代 나막신에 對한 研究 -하멜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7 , No.2』
- 이은선, 2008, 「네덜란드인들이 조선 초기 선교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학위 논문

41) 金文子, 앞의 논문, P.55~56.

VI. 다산 초당원－ 다산과 신유박해

8조: 이영기, 나혜민

다산 초당원은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주택으로 사적 제107호이다. 정약용이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윤규로의 이 초당으로 옮겨 생활하면서 『목민심서』 등을 저술한 곳이다. ‘茶山艸堂’이라는 현판은 金正禧의 글씨로 유명하다. 경내에는 丁石·藥泉·蓮池石假山·茶竈 등 다산의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⁴²⁾

1. 정약용과 그의 사상

다산 정약용은 영조 38년(1762년) 부친 정재원과 모친 해남 윤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팔당 馬岷를 고향으로 하여 태어났다. 정약용(1762-1836)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살았던 철학자로,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여 개화운동을 선구했던 사람이다. 자는 美鏞이며 호는 茶山, 與猶堂, 紫蝦道人, 門巖道人, 竹翁, 籟翁, 三尾子 등이다.⁴³⁾

1777년에 이벽으로부터 처음으로 西敎, 즉 천주교에 대해 듣고 책도 보았다. 그는 서교를 접한 후 넓게 알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던 性癖으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는 등 한동안 상당히 몰두했지만, 과거 공부에 바빠지고 또 서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설을 접하고부터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28세에 대과에 급제해 벼슬살이를 시작했고, 34세에 정3품 당상관 동부승지에 오를 때까지 여러 관직을 거쳤는데, 그 사이 정조의 명령으로 배다리를 만들거나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기둥기를 만들어 성 쌓는 데 쓰게 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겼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친 조선 후기는 시대적 모순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사회적 혼란이 나날이 가중되었다. 탕평책으로 진정된 것처럼 보였던 당쟁은 내면적으로 점차 악화되어 1800년(순조 1년)때부터 심화되어 갔고, 농업이 발전하고 상업, 공업의 발달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지만 삼정의 문란으로 자영농이 소작농이 되는 등 농민의 삶은 피폐해져갔다. 그 가운데 새로운 시대로의 움직임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다산 정약용은 그 폐단들을 근원적으로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4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다산 초당원’

43) 박희성, 조정송, 1997 「정약용의 자연관과 다산초당원의 의미」,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 p.132

정약용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혁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중소자영농의 몰락을 막고 국가 稅源 확보를 위해 閭田論과 井田制 같은 공동 농장제를 제안하였다.⁴⁴⁾ 또한 신분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정약용은 온갖 제도의 문제점과 모순을 지적하며 개혁안을 제시했다.

2. 유배생활과 다산초당에서의 삶

다산이 邪學에 물든 죄인이라는 죄명을 덮어쓰고 강진에 귀양 온 것은 순조 1년(1801년) 11월, 그의 나이 40세 때이다. 그해 봄 셋째 형 정약종(세례명 아오스당)이 은밀하게 옮기려다 발각된 冊籠(책룡) 사건으로 정약용 3형제가 체포돼 의금부에 투옥되는 일이 일어났다. 辛酉迫害(신유박해)로 정약종과 이가환, 이승환 등은 죽임을 당했고 둘째 형 정약전은 신지도로, 그 자신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됐다. 가을에 다산의 조카사위였던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서울로 불려가 문초를 받았으나 별다른 혐의가 없어서 정약전은 흑산도로 이배되고, 자신은 강진으로 유배지를 옮겼다.⁴⁵⁾

다산은 강진을 동문 밖 오막살이 주막의 뒷방에 四宜齋라는 지극히 선비다운 당호를 붙이고 만 4년을 지냈다. 사의재란 마땅히(宜) 지켜야 할 일을 네 가지(四) 조목을 제시한 것으로, ‘담백한 생각, 장엄한 용모, 과묵한 언어, 신중한 행동’으로 자신을 단속하겠다는 다짐이다. 이는 수양 방법인 동시에 유배 생활로 좌절해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다산은 강진에 유배된 지 8년째 되던 47세 때(1808년) 봄에 윤단의 산정인 굴동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다산은 다산초당의 차나무가 마음에 들었고, 윤단의 장서를 볼 수 있는 데다가, 멀리 강진포구의 경치와 담장 안 꽃들이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다산은 다산초당의 풍광을 무척이나 사랑하여 초당 주변에서 가까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광경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며 애정 어린 눈길을 주었다.

담을 스치고 있는 작은 복숭아나무(拂牆小桃), 문발에 부딪히는 버들가지(撲簾柳絮), 봄 쫄 우는 소리 듣기(暖日聞雉), 가랑비에 물고기 먹이 주기(細雨飼魚), 아름다운 바위에 얹혀 있는 단풍나무(楓纏錦石), 못에 비친 국화꽃(菊照芳池), 언덕 위의 대나무의 푸르름(一埠竹翠), 골짜기의 소나무 물결(萬壑松波)을 다산팔경(茶山八景)으로 삼고 시로 읊었다.

다산은 초당 주위에 매화·복숭아·모란·차·작약·수국·석류·치자 등을 가꾸고 세심하

44) 한우근 외, 1985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p.192

45) 최선호, 2007 『한국 미 산책』 (해냄)

게 감상하며 『茶山花史』를 지었다. 이듬해 다산은 초당 주변을 새롭게 꾸미면서 초당 앞 비탈에 돌로 단을 쌓아 채마밭을 만들었다. 이어서 연못을 넓히고 꽃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⁴⁶⁾

3. 서학과 성리학의 대립⁴⁷⁾

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산 정약용은 신유박해를 계기로 장지로 유배 간 이후, 강진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신유박해의 도화선의 불을 붙인 것은 책룡 사건이지만, 그 속에 가려진 이면을 살펴본다면 조선의 통치체제였던 성리학과 새로 들어온 ‘학문’인 서학, 특히 천주교와의 대립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양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조선의 유학이 가지고 있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17세기 조선의 유학은 주자학만을 正學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해석에 대해서는 사학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유학이 조선 개국 초기부터 실학적인 측면이 아닌, 형이상학적 측면과 형식적인 예학에 집중하면서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虛學이 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학파와 당파가 시기가 흐르면서 일체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였고, 필연적으로 이는 학문을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략시키는 일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차례의 호란 이후, 尊明排淸(존명배청)의 北伐論(북벌론)과 尊華攘夷論(존화양이론)이 조선 유학계의 일관된 조류가 됐다. 이런 특징들은 상호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위정척사’의 논리를 탄생시킨다.

붕당정치의 분열 끝에 제1당으로 역할하던 노론이 분열하여 탄생한 시파(북학파)와 벽파가 탄생하고 정조의 4당을 모두 골고루 등용하는 정책으로 수많은 세력이 정치에 연계되게 되었다. 이런 시기에 서학은 도입되고 있었다. 정조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서학과 서교는 구분되고 서학은 용인될 수 있었고, 수많은 서학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이에 힘입어 서학 중에서도 서교에 대해서 큰 탄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정조 사후 정권의 교체와 함께 일어난 정치적 변화와 함께 천주교의 탄압으로 이어지며 신유박해의 시발점이 된다. 순조 시기 대왕대비 김씨가 큰 오빠 김구주가 관직삭탈 당한 일에 대한 원한을 보복하면서 그와 관련된 남인 시파와 천주교도를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왕대비 김씨의 교지를 살펴보면 서학 중에서도 특히 천주교를 사학으로 이야기하며, ‘사학이 인륜을 해친다.’, ‘사학하는 자를 교화하라.’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유교적 도리를 지키는 것을 명분으

46) 최선호, 위의 책

47) 평웨이, 2009, 「조선 서학(西學) 발전에 미친 신유박해의 영향」, 『도시인문학연구』 vol.1(2)(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을 주로 참고하였음.

로 하여 일으킨 신유박해는 결과적으로 성리학이 기반이 되어 작용했던 권력투쟁의 일환이었음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다산 초당원’
- 박희성, 조정송, 1997 「정약용의 자연관과 다산초당원의 의미」, 『한국조경학회지』
- 한우근 외, 1985 『정다산 연구의 현황』 (민음사)
- 최선호, 2007 『한국 미 산책』 (해냄)
- 평웨이, 2009, 「조선 서학(西學) 발전에 미친 신유박해의 영향」, 『도시인문학연구』 vol.1(2)(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VII. 운주사와 천불천탑

5조: 강다솔, 노영조, 박지효, 전한빈, 한준희

1. 운주사

(1) 개요

雲住寺는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千佛山에 있는 절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제 21교구에 소속되어있다. 21교구 본사인 松廣寺의 말사인 운주사는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고 역사학적으로 의미가 깊은 사찰인데 비해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덜 알려졌는데, 이는 운주사에 관한 유래나 역사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한 탓이 크다. 비록 경주 佛國寺처럼 한국 불교사를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서의 입지는 굳건하여 꾸준한 한국사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운주사의 창건 과정에 관해서는 다양한 기록과 설화가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道詵이 창건하였다는 도선창건설, 雲住道人이 창건했다는 설, 그리고 민간 설화로 마고할미가 세웠다는 설이 있다. 학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도선창건설이지만,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984년부터 1991년까지의 수차례 발굴 및 학술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주사의 정확한 창건 연대와 배경, 창건 주체 등의 구체적인 확증을 찾는 데 실패하였다. 다만 운주 골짜기라는 확실한 조성 장소를 바탕으로 전남대 박물관 측에서 발굴 조사를 펼친 결과 창건 시기가 11세기 초까지로 밝혀졌으며, 암반 마멸의 흔적이 발견되어 조성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일부 해소되었다.⁴⁸⁾ 그러나 그 외에는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베일에 싸인 신비한 절의 느낌이 강하다.

(2) 학술적 연구 현황

운주사의 의미를 논할 때 지형적 특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운주사는 大草川이란 하천의 상류에 위치해 있다. 대초천의 의미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시내’라 할 수 있다. 민중의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일치시키는 의미를 갖는 지형이라 할 수 있다.⁴⁹⁾ 또한 운주사는 開天山에 둘러져 있는데, 개천산의 의미는 ‘하늘을 열다’ 즉 ‘깨달음을 얻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 깨달음을 강조한 지리적 요건을 가짐을 알 수 있다.⁵⁰⁾ 따라서 민중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지리

48) 고춘심, 2007, 『운주사 연구』, 1쪽.

49) 위의 책, 25쪽.

50) 위의 책, 27쪽.

적 요건으로써 운주사는 과거부터 많은 민중들의 축제의 장이자 수행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물론 민중 친화적이라는 사실에는 많은 의문점도 따른다. 우선 운주사의 역사부터 알아보아야 하는데, 운주사는 과거부터 수차례 존폐를 반복한 사찰이다. 더구나 운주사의 경우 천불천탑 등과 같은 사람들의 관리가 필요한 유물들이 많이 존재하여 그 복원작업이 쉽지가 않다. 만약 자연재해나 외침과 같은 일로 한번 소실이 되었다면, 재건하는 것에 막대한 인원과 재원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운주사는 기원이 확실치 않을뿐더러 과거부터 수차례 존폐를 반복해왔었다. 더군다나 조선시대의 경우 백성들의 약탈행위마저 있었을 정도로 운주사가 백성에게 있어 축제와 수행의 장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⁵¹⁾

또한 운주사는 천불천탑의 존재와 더불어 그 수많은 탑의 배치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운주사의 탑은 각각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배치가 되어있는데, 불교에서 강조하는 수양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자의 모양이 뜻하는 바와 전체적인 모양이 뜻하는 바를 다르게 설정하여 전체 속에 개인이 또 다른 상황을 형성하는 프랙탈적인 구조를 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²⁾

이러한 구조는 건립 당시의 문화재적 특성상 우월성을 살펴봐야 한다. 운주사는 연대를 통일신라시기로 추정하나, 그 건립자들에 관해서는 백제계통의 사람들로 추정하기도 한다. 우선 탑 및 문양들의 모양과 양식에 있어서 신라보단 백제의 기술이 더욱 가미가 되어 있고, 따라서 당대 백제계통의 사람들의 문화적 우월성의 분출이라는 의미로 작용했다는 견해이다. 게다가 운주사 건물에는 당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여러 양식들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식들은 신라계열 보다는 백제계열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백제계열의 기술자를 신라 쪽에 초청하여 여러 문화재를 지었다는 추측에서 나아가 확증적 유물로써의 기능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⁵³⁾

또한 사상적인 측면으로의 가치도 존재한다. 우선 운주사는 세 가지의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데 삼태극, 홍익인간 그리고 천부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삼태극 사상은 불탑들의 위치를 통해 실현되었다. 불상들의 위치로 나타내는 삼태극 사상은 존재의 근원을 알아내는 역할로써 작용한다. 운주사 배치도 자체로써도 전후좌우의 위치로 실현하고 있다. 와불과 와불 옆에 떼어놓은 시위불들이 3체를 이룸으로써,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삼태극의 사상적 역할로써도 작용한다고 할 수

51) 한규무, 2008, 「화순 운주사에 대한 片鱗과 斷想」,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참조

52) 고춘심, 앞의 책, 참조

53) 백인수, 2012, 「운주사와 황룡사: 백제 석공의 숨겨둔 비밀」, 『경주사학』 35, 경주사학회 참조

있다.

다음으로 홍익인간 사상의 경우, 완전한 인간에 이룬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참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운주사 문양의 의미는 자체적인 문양이 확대되어 나아가 전체를 이루는 구조로, 각자가 자신의 참나의 실현으로 사상을 실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석불군들의 해석을 곁들인다면, 서로에게 배려의 정신으로써 작용하는 사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천부사상의 경우, 숫자와의 연관성으로 그 사상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천부사상은 숫자와 연관이 깊은데, 운주사의 경우에도, 숫자와 관련이 깊은 석탑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운주사는 팔층석탑을 제외하고 구층석탑까지 층수별로 석탑이 존재하고, 배치도들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석탑들은 불교보다 우리 민족들의 사상인 천부사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⁵⁴⁾

운주사는 불교사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미술적 가치로서도 의미가 깊다. 운주사는 고려시대에도 영향을 많이 받은 절로써, 고려가 표방한 고구려 나아가 고조선의 미술을 계승한 측면도 보인다. 또한 운주사는 사상적 측면에서 살펴본 천부사상을 위해 배치를 다르게 표현하여, 짙은 불교미술사적 측면이 아니라 개방성을 표방하는 미술사적 측면도 보여준다. 또한 운주사는 여러 첨탑과 불상들이 별자리를 표현하기도 하여 토속 자연신앙적 측면도 보여준다. 운주사는 또한 소박한 미적 양식을 표현함으로써, 민중과 더욱 관련이 깊은 미술적 측면도 보여준다. 이로써 운주사는 여러 문학에서도 민간과 친한 양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운주사의 양식은 화려하기보다 소박한 것에 가깝고, 운주사의 여러 불상도 세련되기보다 투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운주사는 그 미적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중 친화적 이미지로 승화되어 있다.⁵⁵⁾

운주사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 여러 가지 형상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의의를 얘기하고 있다. 운주사는 불교뿐만 아니라 민중과 친화된 나아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의의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운주사는 계속해서 그 존폐를 달리 해왔지만 그 의의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과거의 사상을 표현하며 옛 정신을 현시대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천불천탑

(1) 천불천탑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운주사에 들어서면 수십 개의 불상과 다양한 모양의 불탑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천불

54) 고춘심, 앞의 책, 참조

55) 고춘심, 앞의 책, 참조

천탑이라 하는데, 이름과 달리 실제로 볼 수 있는 불상과 불탑의 개수는 각각 1백여 구, 21기이다. 일반적인 사찰의 가람 양식과는 크게 벗어난 이 구도에서 불상과 불탑은 역시 제각각의 크기와 모양을 하고 있다. 불상의 경우, 정교한 비율과 섬세한 표정이 구현된 삼국시대의 불상들과 달리 마치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듯 매우 투박한 모습을 하고 있다.

몇몇 불상들은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어떤 것은 돌방 안에 석불 2구가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 있는 모양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불탑의 경우, 운주사 구층석탑과 같이 잘 알려진 탑을 비롯하여, 작은 항아리를 겹쳐 쌓은 듯한 모양을 한 탑(일명 오가리탑), 탑신 부분이 마치 호떡과 같은 납작한 원판형의 돌로 이루어진 탑(일명 호떡탑) 등 다양한 모양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⁵⁶⁾ 운주사 구층석탑의 높이는 약 10.7m이다.

(2) 배경 설화 및 학술적 의미

천불천탑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설화는 간략히 다음과 같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대 왕을 위해 남긴 교훈인 訓要十條에는 차령 이남과 금강 바깥, 오늘날로 치면 호남 지방 출신의 사람은 기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의 후백제 유민들은 천불동에 하룻밤 사이에 천 개의 불상을 만들면 미륵불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는 믿음 하에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개의 불상만을 더 완성하면 되는 때에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은 좌절되었고, 그렇게 立佛과 坐佛을 미완성으로 남겨둔 채 망연자실한 사람들이 모두 쓰러졌다는 것이다.⁵⁷⁾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이설이 존재한다. 한 논문에서는 그것을 열한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당에서 풍수지리를 배운 도선이 (1) 군왕지의 혈을 누르기 위해, 즉 현재의 운주사가 있는 지역이 군왕이 날 땅이었으므로 고려왕조를 지키기 위해 혈을 누른다는 명목 하에 천불천탑을 만들었다는 것, 반대로, (2) 그곳에 정부를 세워 수도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臥佛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 채로 발각되어 실패하였다는 것, 한편, (3) 우리나라 땅의 형국이 행주(行舟: 배가 가는 모양)의 형국인데, 서남쪽에서 국토의 균형이 맞지 않아 운주사(이 때 운주사의 한자 표현은 배를 띄운다는 뜻의 ‘運舟’가 된다)를 세우고 천불천탑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일에 지친 上座가 닭 울음소리를 내는 바람에 함께 불러온 천상의 석공들이 불상과 불탑 각각 하나씩을 만들지 못한 채 승천하였다는 것 등이 있다.⁵⁸⁾

56) 전용훈, 「운주사 천불 천탑의 비밀 -과장과 왜곡에 귀 기울인 ‘역사스페셜」, 『과학동아』 1999.7, 94쪽.

57) <MK뉴스>, “[역사의 향기] 천불천탑과 5월 항쟁”, 2013. 5. 2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92935>)

천불천탑의 기원과 관련된 이 설화들은, 당시 승려들이나 절 사이에서 통용되던 불교적 세계관과는 달리 민간에서 유행하던 토속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로 山川裨補思想 등의 풍수사상, 둘째로 불타·과거불에 대한 찬양과 미래에 도래할 미륵불에 대한 기대 등이 담긴 미륵신앙을 발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在家信者들이 불탑예배에 의해 성불할 수 있다고 보는 천불신앙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천불천탑은 지방 토호나 지방민 등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⁵⁹⁾

(3) 예술적 의미

운주사의 천불은 다른 사원들의 불상들에 비해 상당히 독특하고 신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천불의 건립 시기는 여러 차례의 발굴 조사나 연구를 통하여 일반적으로는 고려시대로 여겨지고 있다. 고려시대의 불상 양식은 당시의 시대적 사회 상황과 큰 관련을 맺고 있었다. 당시 새로운 왕조의 건설로 인하여 고려 사회에는 사원의 건립, 불상의 조영 등으로 새로운 문화적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 초기에 지방의 호족세력 사이에서 강하게 밀어닥치던 선종, 풍수지리설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불상 조각에 대한 표현능력이 감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⁶⁰⁾. 이 때문에 당시 고려 불상들은 과거 신라 시대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계승하였지만 이전의 신비하거나 이상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운주사의 석불은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다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 불상조각에 비해 운주사 석불은 눈, 코, 입을 비롯한 신체 부위와 신체적 비례가 서로 맞지 않으며 친근하면서 우습게 느껴지는 해학미를 진하게 풍기고 있다. 또한 이전의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게 불상에 대한 장식적 기법이 많이 절제되어 있다. 조각 기법은 섬세하지 못하고 거친 모습을 나타내며 강한 이미지의 도전적 단순미를 보여주고 있다⁶¹⁾.

운주사의 석불은 또한 토속적인 속성과 자연과의 조화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석불이 자신의 독자적인 존재감과 내부적인 예술성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형성과 외부의 문화적 환경과의 소통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아 자연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형화되었다. 이는 산이 많은 주변 지역 사정에 따라 석불의 규모와 높이를

58) 송기숙, 1991, 「운주사 천불천탑 설화와 변혁사상」, 『실천문학』 22, 실천문학사, 287~290쪽.

59) 송기숙, 같은 논문, 282~283쪽.

60) 황정우, 1994, 「운주사 천불천탑의 미적특성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쪽.

61) 조대원, 2000, 『운주사 석불의 조형미에 관하여』, 20쪽.

크게 하지 않고 조정한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운주사의 석탑 또한 고려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고려 시대의 석탑은 신라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 토착 세력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징에 따른 다양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운주사 석탑들은 일정한 하나의 통일된 양식 없이 매우 각양각색의 이미지를 내뿜으며 전통적인 탑의 양식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운주사 석탑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인 방형탑뿐만 아니라 원형탑과 같은 특이한 석탑들이 다양한 층을 이룬 상태로 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전형적인 기단이 없이 자연 암반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탑身의 石面에는 마름모꼴, 교차선, 직선, 사선 등의 기하학적인 문양이 많이 나타난다. 방형 옥개석에 옥개 받침이 없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 이는 사선 문양이 받침을 대신하고 있다. 석탑 역시 석불과 마찬가지로 자연과의 조화를 매우 중시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필요 이상의 방대한 규모로 축조되지 않고 나무나 풀과 비슷한 높이로 건축되어 주변 자연 환경을 임의로 침해하지 않았다.

이처럼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비슷하면서도 제각기 다른 미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석불과 석탑이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여 진전된 미적 충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⁶²⁾ 석불의 곡선적인 예술미와 석탑의 직선적인 예술미가 서로의 외관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보다 조화롭고 다양한 표현들을 이끌어내었다.

3. 와불

(1) 와불의 제작 연대와 배경

와불은 운주사 계곡 정상부에 있는 누워있는 형태의 석불 2구로 본명은 和順雲住寺臥形石造如來佛이다. 2구의 와불은 땅 위에 서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석불과 달리 座佛과 立像으로 자연석 위에 조각되어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누워있다. 운주사 자체에 대한 창건설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와불의 제작 설화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그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대략 11세기 초 쯤에 운주사가 창건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와불의 제작 연대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⁶³⁾ 와불과 얽힌 설화를 통해 와불이 제작된 시기와 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설화 속의 배경은 학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설화의

62) 위의 책, 33쪽.

63) 고춘심, 앞의 책, 참조

시대 배경이 전부 옳다고는 할 수 없다.

(2) 와불의 제작 양식

와불은 자연석 위에 새겨진 부처로서, 입상과 좌상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입상의 왼팔은 오른쪽 가슴위에 얹어져 있고 오른팔은 손등을 배에 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좌상은 가슴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얹은 결가부좌 자세를 하고 있다. 와불에는 빈 공간이 있고, 그 가까이에는 시위불이라는 또 다른 석불이 세워져 있다. 시위불은 오른팔을 왼쪽 가슴에 얹어놓고 왼팔은 왼쪽 다리에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두 석불의 모습이 유사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와불 좌상의 오른쪽에서 시위불을 떼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역사학자 고춘심에 의하면 세 석불을 한 바위에 새겨 넣은 것은 불교의 一體三用 또는 一卽三 三卽一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⁶⁴⁾

와불이 있는 운주사는 S자 산세에 좌우 산등성(개천산과 천태산)이 사이 골짜기에 주요 탑상들을 배치함으로써 三太極을 이루고 있다. 또한 개천산과 공사바위, 와불은 삼각구도의 세 꼭지점을 이룬다.⁶⁵⁾ 앞서 언급한 와불 제작설화들에도 등장하듯이 이는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다. 군왕지혈 설화와 새 왕조 개창 설화의 내용처럼 운주사가 있는 곳은 국태민안의 길지로서, 왕이 나오고 서울이 세워지는 명달혈이다. 따라서 와불의 머리 방향이 남쪽인 개천산을 향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제작양식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우선, 개천산에서 開天은 ‘열린 하늘’ 또는 ‘하늘을 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하늘’은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머리를’ 연다는 것은 불교적 의미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고 이것은 곧 인간이 되는 길이며, 참생명의 가치를 드러내어 공존하는 길을 뜻한다.⁶⁶⁾ 그렇기 때문에 와불의 머리가 개천산을 향하고 있는 것은 석공의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운주사 전체에 있는 석불과 석탑의 조각 양식이 같기 때문에 천불천탑과 운주사 건물 자체에는 동일한 세계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64) 위의 책, 참조

65) 위의 책, 참조

66) 조용길, 2003, 「대-소승 논쟁의 비판적 성찰」, 『불교평론』

VIII. 화순 고인돌 유적

6조: 강동철, 김승현, 양진영, 임다송, 최윤순

1. 고인돌과 거석문화

(1) 거석문화의 개념과 종류

거석문화는 큰 돌로 일정한 축조물을 만들어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무덤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⁶⁷⁾ 거석(Megalith)이란 하나의 구조물이거나 기념물 또는 그 일부로 사용된 돌을 말하며, 거석물(Megalithic)은 인간 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대상물 즉, 돌로 만든 구조물을 뜻한다.⁶⁸⁾ 거석문화의 공통적인 특징 태양숭배와 관련짓기도 하고, 주로 큰바다(大海) 인근에 분포하고 있어 해양문화의 소산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거석은 풍작과 수확물에 대해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세운 기념물, 주변 집단과의 투쟁에서 戰勝을 기념하기 위한 凱旋的 기념물, 존경하는 지도자를 추모하기 위한 거석비 등으로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석문화는 세계적 분포를 보이며 고인돌(支石墓), 선돌(立石), 列石, 環狀列石, 石像 등이 대표적이다.

고인돌은 땅 위나 땅 속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덮은 형태로 거석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고인돌은 대부분 무덤으로 쓰이고 있지만 공동 무덤을 상징하는 묘표석, 또는 종족이나 집단의 모임 장소나 의식을 행하는 제단으로 사용된 것도 있다. 우리나라 고인돌에서는 한 사람만 매장한 것이 보편적이지만 유럽의 고인돌에서는 한 무덤방에 여러 구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어 여러 세대에 걸친 공동체의 가족납골당으로 보고 있다.⁶⁹⁾

선돌은 하나의 돌을 수직으로 세워 놓은 형태로, 그 기원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男根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열석은 선돌이 한 줄이나 여러 줄이 평행으로 세워진 석열 형태로 프랑스 카르낙 열석이 대표적이다. 환상열석은 선돌을 원형으로 배열한 형태로 영국의 스톤헨지가 대표적이다. 석상은 사람 얼굴 등의 형상을 묘사한 돌을 세워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돌하르방이나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이 대표적이다.

(2) 고인돌의 개념과 종류

67) 임영진, 1999, 「유럽 거석문화 연구현황」, 『한중고고학연구』 6, 한국선사고고학회, p.129.

68) 이영문, 2001, 『고인돌 이야기』, 다지리, p.33.

69) 위의 책, pp.34~36 참조.

‘고인돌’은 납작한 판석이나 괴석형 덩이돌 밑에 돌을 고여 지상에 드러나 있는 ‘고여있는 돌’이란 뜻인 支石墓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켈트어를 어원에 두고 돌멘(Dolmen)이라 한다. 켈트어로 ‘Dol’은 탁자를 뜻하고 ‘Men’은 돌을 뜻한다. 이는 영어로는 Table Stone이라 하여 탁자식 고인돌을 연상시킨다. 일본에서는 고인돌을 지석묘를 그대로 쓰고 있고, 중국에서는 ‘돌로 만든 집’이란 의미로 石棚이나 ‘큰 돌로 무덤방을 덮은 무덤’이란 뜻으로 大石蓋墓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 고인돌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독바우, 권바우, 거북 바우, 두꺼비 바우, 개구리 바우, 칠성 바우 및 장군 바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고인돌의 노출 정도, 덮개돌의 형태, 고인돌의 배치 및 전설과 연관되어 민간에서 불리는 이름이다.⁷⁰⁾

고인돌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덮개돌의 단면 형태에 따라 판석형, 장타원형, 괴석형을 구분하기도 하고, 받침돌의 크기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법은 외형적 형태를 중심으로 크게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으로 나누는 것이다.

보통 탁자식 고인돌은 한강 이북에 주로 분포하여 북방식 고인돌로, 바둑판식 고인돌은 한강 이남에 주로 분포하여 남방식 고인돌로 불리기도 하는데, 분포지역이 한강을 기준으로 정확히 나뉘는 것은 아니며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북 익산) 북방식, 남방식의 용어보다는 탁자식, 바둑판식으로 부른다. 북한의 학자 석광준 교수는 “북방식, 남방식의 구분은 일제 어용학자들의 분열주의적 궤변으로, 고인돌 무덤의 형식을 분류하려는 시도는 일제의 조선침략 이후 침략의 길잡이로 활동한 ‘도리가’라는 어용학자에 의해 1916년에 처음 제기되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⁷¹⁾

탁자식 고인돌은 잘 다듬어진 판돌(板石) 3매 또는 4매로 무덤방(石室)을 땅 위에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얹어 놓아 마치 탁자와 같이 생겼으며, 주로 한강 이북의 북쪽에서 많이 분포한다. 중국에서는 이를 석봉(石棚)이라 부르고 북한에서는 발굴지역의 이름을 따 五德型이라고 한다. 탁자식 고인돌은 황해도나 대동강 유역, 강화 및 중국의 요동 반도 등에 주로 분포하고 호남지방에서도 일부 발견되고 있다.

바둑판식 고인돌은 판돌을 세우거나 깎돌(割石)로 만든 무덤방을 지하에 만들고 땅 위에 받침돌을 4매에서 8매 정도를 놓은 후, 그 위에 커다란 덮개돌로 덮어 마치 바둑판 모양을 하고 있다. 기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로 호남과 영남 등

70) 이영석, 2008, 『고인돌』, 한솜미디어, p.13 참조.

71) 위의 책, 21쪽 참조. 한강 이북에 전형적인 탁자형 고인돌이 조금 더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에서도 상당수의 개석식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특정 형태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인정된다.

남부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덮개돌이 거대하고 괴석상(塊石狀)을 한 고인돌은 호남과 영남지방에 주로 분포한다. 이런 고인돌은 거의 무덤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단의 공공목적으로 건립된 제단과 같은 기념물로 보고 있다.⁷²⁾

개석식 고인돌은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바로 뚜껑 역할의 덮개돌이 놓인 형식으로 한반도 전체, 요동반도, 일본 큐슈지방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는 받침돌이 없다 하여 無支石式이라고도 하는데 한반도와 만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형식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大石蓋墓라 칭한다.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대부분 이 형태에서 출토된다.

2. 화순 고인돌 유적

(1) 화순 고인돌 유적을 통해서 본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청동기시대란 인류가 처음으로 청동 주조 기술을 알게 되어 청동기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인류문화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게 되고, 그 이전의 석기시대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된 시대이다. 청동 합금제품이 제작 사용되는 시대는 통젠의 3시대 구분법에 따라 청동기 시대라 불려왔다.⁷³⁾ 특히,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빗살무늬토기에서 무문토기로 바뀌어가고, 마제석기가 더욱 발달하여 각 석기마다 쓰임새에 따라 일정한 형태가 이루어지며, 농경사 등 농경이 본격화되고, 무덤이 정형화되어 혈연 가계가 형성되며, 청동기가 제작 사용되는 문화적인 특징으로 이해된다. 특히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것이어서 인간이 새로운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며, 석기에 비해 형태의 제약이 없고 재제작이 가능하고 견고하며 날을 수시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최근 발굴 성과로 인해 기원전 10세기에서 15세기까지 올려 잡고 있으며, 하한은 기원전 300년 전후까지로 보고 있다.⁷⁴⁾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대표적으로 발굴되고 청동기 시대의 상징적인 유물인 고인돌 다수가 온전히 보전되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전라남도 화순군이다. 화순군에는 고인돌만이 아니라 다양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화순 지역에서 확인 조사된 유적은 집자리와 주거추정지, 고인돌, 돌널무덤, 세형동검, 청동거울 등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부분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⁷⁵⁾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전라도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2) 이영문, 앞의 책, p.75 참조.

73) 화순군지편찬위원회, 2012, 『화순군지 上-자연환경과 역사』, p.209.

74) 위의 책, 같은 쪽.

75) 위의 책, p.222

먼저, 화순에서 발굴된 집자리는 4곳에서 13동이 조사되었고 세부적으로는 복교리 2동, 백암리 1동, 광대촌 3기, 내평리 7동 등이다. 이들 집자리의 형태를 조사해보면 중앙에 중심기둥을 중심으로 가구된 형태로 원추형이나 원추에 대들보가 올려진 맞배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⁷⁶⁾ 그리고 이러한 집터에서는 편지 형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민무늬토기가 발견되고 석기류가 발견되기도 한다. 석기류로는 석촉, 석검 등이 발견되었다. 석검과 석촉의 종류는 유경식으로 보성강 유역에서 발굴되는 유물의 종류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⁷⁷⁾ 이외에도 방주차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 고인돌을 축조한 고대인이 의복을 직접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순군 고인돌 유적지에서는 다량의 청동기 유물들도 함께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유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세형동경 5점, 청동거울 2점, 팔주령 2점, 쌍두령 2점, 청동도끼 1점 등이 발견된다.⁷⁸⁾ 특히, 청동팔주령과 청동거울, 세형동경⁷⁹⁾ 등 당시 유력한 집단이나 지배신분의 소유자가 아니면 청동기를 소유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도곡면 대곡리 유적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집단의 마을 터로 추정된다.

(2) 화순 고인돌 유적의 고인돌들

화순 지역에서는 모두 18곳에서 160기의 고인돌이 발굴조사 되었다. 최초는 1975년 영산강 4개댐 조성공사로 인하여 나주호(대초댐)지역인 도암 대초리에서 2개소 9기가 조사 되었다. 그 후 광주시 상수도 수원 확보를 위해 동복댐 확장공사로 인해 1981년 이서면 월산리, 장학리, 창랑리 등 3곳에서 19기가 조사되었다. 이 발굴에서 완형의 가지문토기와 3점의 간 돌검이 출토되어 귀중한 고인돌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주암댐 공사로 인해 1987년 남면 복교리, 사수리, 절산리 등 3곳에서 33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보성강유역의 고인돌의 성격과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택지나 도로 확장, 골프장 건설 등으로 6곳에서 조사된 바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고인돌도 4차례 조사되었다.⁸⁰⁾ 고인돌의 형태는 탁자식과 바둑판식, 개석식 모두 보인다.

탁자식은 지상에 무덤방 벽석이 드러난 형태로 긴 벽이 1매인 것과 2매인 것이 있는데, 화순 춘양 대신리와 도암 윤월리가 있



그림 12

76) 위의 책, p.223

77) 이영문, 1990, 『호남지방 지석묘 출토유물에 대한 고찰』, p.25

78)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p.241

79) <그림 1> 참조

80) 위의 책, p.226

다. 기반식은 받침돌이 고인 형태로 주로 규모가 큰 거들로 무덤바이 발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인 것이 남면 절산리와 도곡 효산리, 춘양 대신리의 고인돌이다. 개석식은 무덤방을 직접 덮고 있는 형태로, 모두 무덤방이 확인되고 있다. 묘실은 판석을 이용한 것과 깎돌이나 강돌을 쌓은 것으로 구분되며, 모두 네모진 구조이다. 이렇듯, 화순군에서는 다량의 고인돌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분포를 보게 되면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의 고인돌 유적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⁸¹⁾ 이렇듯, 화순군에서는 많은 양의 고인돌이 발견되었는데 다수의 고인돌의 보존과 이에 따른 고고학적 가치로 인해 화순군 고인돌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중에서도 인상적인 고인돌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과 초대형 고인돌 유적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대신리 고인돌은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지동마을에 위치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고인돌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1999년 목포대학교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덮개돌은 20기, 하부유구는 22기가 확인되었다. 고인돌은 덮개돌과 하부구조가 있는 6기를 제외하면 덮개돌이 모두 이동되어져 정확한 성격규명을 할 수 없었다. 묘역의 조성은 하나의 묘역에 추가적으로 연결하여 전체적인 묘역을 장방형으로 조성하여, 편평석을 일정하게 깔아 구획한 부석시설과 무덤방 주변에 깎돌을 쌓고 그 석을 덮에 편평석을 돌려 깎 적석시설이 있다. 무덤방은 깎돌과 막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돌널형과 판돌을 세워 만든 돌널형이 있다. 여기서 다양한 석기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무덤방에서 가락바퀴, 민무늬토기편과 무덤방 주변에서 갈돌편, 돌자귀 등이 출토되었다.⁸²⁾ 그리고 대곡리 내대곡 라군 고인돌과 도장리 가군 고인돌은 그 크기가 높이 600~700cm, 폭 4~500cm, 두께 370cm 정도로 초대형 고인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춘양 대신리 지동마을에서 보성치로 가는 길에 위치한 ‘여흥민씨세장산’이라 새겨진 길이 760cm, 폭 420cm, 두께 410cm의 상석하에 수기의 지석이 고이고 있는 고인돌이다. 이러한 고인돌들은 무게가 약 200t 정도여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고인돌 중 초대형에 속하며, 무덤보다는 집단의 기념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어느 한 열연집단에 의해 고인돌이 축조될 수 없고 지역적으로 연합된 혈연집단의 공동체적인 협동정신에 의해 축조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⁸³⁾

(3) 화순군 고인돌 문화의 특징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는 민무늬토기의 출현, 용도에 따른 다양한

81) <그림 2> 참조

82) 이영문 외, 2003, 『화순 대신리 지석묘군』

83)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p.240

간석기의사용, 농경의 보편화, 새로운 정형화된 고인돌 등 무덤의 출현, 청동기의 제작사용 등으로 특정 지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화순지역의 고인돌에 집중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화순군 고인돌 문화의 특징들을 꼽자면 먼저 고인돌이 집단으로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혈연집단에 의해 그들만의 묘역이 조성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인돌 집단 중에서도 상징적인 기념물과 묘역을 상징하는 묘표석 고인돌이 존재하며 이런 고인돌은 규모면에서 거대할 뿐 아니라 형태상에서도 웅장하고 가장 조형미를 갖추고 있어 무덤으로 사용된 고인돌과는 차별화가 뚜렷하다.⁸⁴⁾

그리고 고인돌 축조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착생활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경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농경지 확보를 위한 집단 간의 경쟁은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양상이 되었고 공동체 간의 영역 설정의 결과물로써 조상 무덤인 고인돌을 축조하게 되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돌을 중심으로 하여 그 군집 수, 출토유물, 무덤방의 배치를 통해 추론해보면 사회 구조 속에서 지배집단과 지배자의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고인돌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인돌과 함께 발굴조사 된 유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유물 중에서 신분의 상징물로 청동검, 옥, 간돌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유력한 집단이나 신분의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다. 이러한 유물들과 함께 고인돌 유적이 발굴 되었다는 것은 화순 고인돌 문화가 신분제 사회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⁸⁵⁾

3. 화순 고인돌 유적과 세계 거석문화와의 비교

(1) 세계의 거석문화들과의 비교

고인돌을 중심으로 하는 거석문화는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그 형태나 형식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달되었던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거석문화라는 점과 그 거석문화가 생성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기도 하지만 각 문화권마다 배경으로 하는 고유한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배경, 역사로 인해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화순 고인돌 유적과 비교해서 세계의 여러 거석문화들과 어떠한 면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어떤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84) 위의 책, p.243

85) 위의 책, p.244

먼저, 유럽의 스톤헨지 유적과 비교를 해보면 스톤헨지와 관련된 제의에 참여하는 집단들은 제의와 관련된 타 집단을 건축물의 규모나 질적 측면에서 압도하면서 지역의 주도권을 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주도권 획득에 기여한 개인들이 스톤헨지 주변의 개인무덤의 축조를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개인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순군 고인돌 유적지에서 지역의 유력 집단이나 지배신분에 속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던 세형동검, 청동거울 등이 발견된 것을 미루어 보면 청동기 시대에 강력한 권력을 보여주던 화순군 고인돌의 상징성과 제의를 계승하는 지역공동체에 주도권과 권위의 당위성을 부여했던 스톤헨지의 상징성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화순 고인돌 유적은 고인돌 설립 목적 자체가 자기과시이고 스톤헨지의 경우에서는 제의의 계승과정에서 스톤헨지의 의미가 변질되어 자기 과시의 상징성 가지게 되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스톤헨지의 경우 일출과 관련하여 천체 관측의 기능도 담당하였다는 견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화순 고인돌과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스톤헨지의 경우 환상열석이라 거석들이 일정한 원형형태로 줄지어 있는 형태이지만 고인돌은 탁자식과 같이 전형적인 거석 무덤형식을 보인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거석문화의 경우,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마찬가지로 고인돌 형태를 가지는 거석문화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탁자식이나 개석식 등 화순 고인돌 유적에 존재하는 고인돌 양식들이 거의 유사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를 받았는데 그 치하에서 라자라는 왕이 소왕국을 이루고 살았는데 네덜란드의 침략으로 인해 숨바섬의 사회계급분화가 심화되었고 이는 라자의 무덤들은 점점 거대화되었다.

이러한 점은 화순 고인돌 유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화순의 고인돌들도 처음에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고인돌이 많이 만들어지다가 지배권력을 장악한 계급이 등장하면서 고인돌이 거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은 화순 고인돌 유적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그 명맥이 끊어져서 현재에 와서 발굴조사되어진 것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토속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온 덕분에 최근까지도 고인돌이 만들어졌다는 점과 이 근래에 만들어진 소형 고인돌들은 사당이나 민간에서 소원을 비는 기원처로 쓰인다는 점에서 화순 고인돌 유적과는 확실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거석문화와의 비교를 해보면 근본적으로 거석 구조물이라는 점과 충분한 동원능력을 가진 지배자의 주도로 특정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건설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화순 고인돌유적의 경

우 단일 구조물이지만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각각의 거석들의 역할이 구분된 세 구역으로 나뉜 복합적인 건축 구조물 군(群)이라는 점과 근본적으로 무덤이었던 고인돌과는 달리 그레이트 짐바브웨의 경우 일반 민의 주거지도 존재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결론

위와 같은 거석문화들과 그것들을 바탕으로 추론한 사회구조를 현대인의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회상만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거석문화들이 세워진 시기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 거석문화들은 당시의 지배권력이 응집되어 나타난 당시로서는 최고의 권력의 결정체이자 당시 문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충분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영문, 1990, 『호남지방 지석묘 출토유물에 대한 고찰』
- 임영진, 1999, 「유럽 거석문화 연구현황」, 『한중고고학연구』 6, 한국선사고고학회
- 이영문, 2001, 『고인돌 이야기』, 다지리
- 이영문 외, 2003, 『화순 대신리 지석묘군』
- 이영석, 2008, 『고인돌』, 한솜미디어
- 화순군지편찬위원회, 2012, 『화순군지 上-자연환경과 역사』

IX. 5.18 광주 민주 묘역

-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기억으로 남길 것인가? -

7조: 진재권, 김초해, 정재민, 한정훈, 홍민철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 있었던 과거로서의 역사와 시간이 지난 뒤 내려오는 기억으로서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의문이 바로 전자와 후자 사이의 관2계인데, 기억으로서의 역사는 결국 과거의 재현이며 그 과정은 역사가들, 즉 사람에 의해 진행되기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는 또 다른 질문거리를 낳게 되는데,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기억으로 남기며, 그 재현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관한 문제이다.

광주는 예로부터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 왔던 기억의 장소이며, 특히 한국 근대사의 서술에 있어서 광주학생운동, 5. 18 광주민중항쟁 등의 무대가 되었던 광주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에 관한 역사의 서술은 역사가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뉘며, 자연히 역사 비전공자들도 매우 다양한 관점을 갖는 역사적 사건들의 공간적 배경이기도 하다. 본 답사지에서는 광주의 이러한 성격에 주목하여, 제기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기억으로 남겨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1. 광주학생운동의 전개과정 및 성격

광주학생운동이란 1929년 10월부터 이듬해 1930년 3월까지 광주에서 시작하여 전국운동으로 발전한 학생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말한다.⁸⁶⁾ 이 운동은 처음으로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한 뒤 목포, 나주 등 전남지역으로 확산되었던 때, 두 번째로 12월 서울과 지방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던 때, 그리고 세 번째는 1930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및 국외에서 민족적으로 전개되었던 때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⁸⁷⁾

먼저 광주학생운동이 왜 발생했는지 살펴보면,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한일 열차 통학생들간의 충돌이 주된 원인이었다. 언뜻 보아 혈기 넘치는 청년학생

86) 조동걸, 2000, 「광주학생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p.281

87) 장석흥, 2000, 「광주학생운동의 국내외 확산과 그 성격」,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pp.137~138

들의 민족적 감정 대립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지배자 일본인과 피지배자인 한국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축적된 사회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⁸⁸⁾ 나주라는 지방은 일제의 침략이 집중되어 조선인의 토지보다 일본인이 보유한 토지가 훨씬 많았고, 어떤 마을은 조선인의 토지가 한 평도 없을 정도로 일제의 완전 지배가 실현되고 있었던 곳이다.⁸⁹⁾ 이러한 형태가 일본인과 조선인의 감정의 골을 깊게 하였고, 불만이 나주역의 한·일 학생간 충돌이라는 모습으로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

광주학생운동 이전에도 1920년대에 학생운동이 일어났었지만, 대부분 지역 중심적이거나 산발적인 차원의 운동이었다. 반면, 광주학생운동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해외에까지 전파된 운동이었다. 또한, 이전에 일어났던 학생운동들이 학교의 시설개선, 일본인 교사배척 등의 현장에서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면 광주학생운동은 이러한 점을 넘어서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요구하고 독립을 지향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하였던 운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2. 광주민중항쟁의 배경

(1) 광주민중항쟁의 배경

* 정치적 배경

광주민중항쟁은 지배세력과 피지배민중의 충돌이 구체적으로 강경군부와 광주민중의 무력충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통해 성장한 군은 지배체제의 이해를 갖는 미국과 국내 지배세력의 최종적, 결정적인 물리적 조직이 되었다. 또한 군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갖는 조직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에 개입했다. 강경군부의 탄압에 대해 특히 광주 민중들이 끝까지 무장 항쟁을 한 이유는 호남민중으로서 느끼는 피해의식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종속적 경제발전은 지역적 불균등발전과 권력독점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지역격차를 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호남지역은 경제발전과 권력배분에서 배제되었고 일반 민중들이 겪는 고통과 함께 지역적 소외감을 느끼며 호남민중은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 1980년의 민주화운동은 호남민중들에게 큰 희망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은 학생시위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광주민중항쟁에 대거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⁹⁰⁾

88) 장신, 2000, 「조선총독부의 광주학생운동 인식과 대응」, 『광주학생운동연구』(아세아문화사) p.251

89) 조동걸, 2000, 앞의 논문, p.283

90) 정해구 외, 1990,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pp.29~77.를 주로 참고하였음.

* 경제적 배경

1980년에는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블력과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한 노동자계급, 농민층, 하층뿌띠부르조아지, 학생간의 대립이 구체화되었다. 광주 민중항쟁은 이러한 대립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은 축적위기의 모순에 대해 생존 권력투쟁으로 대응했고, 특히 1960년대의 광범위한 뿌띠부르조아지는 1980년 대규모 분해를 통해 산업프롤레타리아로 전화해 노동자 계급의 양적 우위를 확실히 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은 종속적 자본주의가 야기한 적대적 대립이 가장 첨예했던 곳이다. 이 지역은 자본주의적 성장이 지체되어 중소자본이 몰락했고, 특히 노동계급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적어 더욱 성장하지 못했으며 뿌띠부르조아지가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서의 반민중성은 물론 점점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적 차별에 분노하며 깊은 불신과 대항의식을 갖고 민중연합블력을 형성했다. 이들은 여러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국적 수준보다 노동계급이 양적, 질적으로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항쟁 초기에 내적 한계를 경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간의 내적 역동성과 연대성이 폭발적으로 강화됨으로써 항쟁에 돌입할 수 있었다.⁹¹⁾

3. 광주의 기억

한국사에서 중요한 기억을 담당하는 하나의 중심에는 광주가 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 동학농민전쟁,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5.18광주민중항쟁 등의 대표적인 저항의 역사와 기억은 대개 광주를 중심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광주라는 지역은 한국사에서 특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에서 광주의 기억은 매우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광주의 기억 중에서 가장 현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단연 5.18광주민중항쟁이다.

5.18광주민중항쟁—속칭 5.18—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 왔을까? 당시 집권세력은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설에 근거하여 광주민중항쟁을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유발된 폭도들의 무장난동’으로 규정하였다. 그들이 주장한 광주폭동사태의 경위와 진상은 불순분자들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조종과 교묘한 선동을 통하여 광주지역시민들의 지역감정을 폭발·홍분시킴으로써 견잡을 수 없는 군중심리의 폭발로 유도하여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⁹²⁾ 독재정권은 5.18을

91) 이 부분은 정해구 외, 1990, 위의 책, pp.81~116.를 주로 참고하였음.

92) 광주민중항쟁을 보는 당시 지배계급의 논리에 대해서는, 정해구 외, 1990,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pp.12~13.를 주로 참조하였음.

폭동의 기억으로 만들어버렸고, 독재정권 하에서 억압된 사람들의 기억은 집권세력이 소유한 기억 아래에 억눌려있었다.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5.18을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할 때까지 5.18은 ‘폭동’ 또는 ‘광주사태’로 표현되었다. 폭도라는 낙인을 받은 5.18의 사망자와 그 유족들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가 뒤따랐다.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 뒤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서는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⁹³⁾

1980년대 이후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에서는 5월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국가 폭력에 대한 비판, 현재의 정치적 열망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공간이다. 시민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5.18의 기억을 재생산한다. 이 행사는 민주화 이행의 시기에는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과거 청산을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다가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점차 표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변화되었다.⁹⁴⁾ 5월 행사는 독재정권의 억압에 대한 기억투쟁(Struggle of Memory)이었다.

5.18 사건을 다룬 작품들도 많다. 수많은 드라마까지 많은 대중 매체들을 통하여서 5.18은 우리에게 기억된다. 물론 이들은 창작물이기에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는 실증적인 역사를 보여준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5.18에 대한 배제되어 왔던,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기억들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경도된 역사와 역사적 기억에 대해서 충격을 가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기억을 불러일으켜 역사 내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힘을 지닌다.

1980년대에 비하면 오늘날에 한국사회에서 갖는 5.18의 의미는 크게 다르다. 5.18의 과거 청산을 주장하는 반정부 투쟁은 더 이상 없으며, 5.18을 기념하는 행사들은 국비나 공공자금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기념물들과 기념 공간들이 생겨났으며, 5.18 관련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는 5.18의 트라우마티즘(traumatism)⁹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린다 루이스(Linda S. Lewis)는 5.18의 희생자들이 아직도 1980년 5월의 고통에서 벗어나

93) 이 부분은 정호기, 2010, 「5.18의 주체와 성격에 관한 담론의 변화」, 『황해문화』, 통권 제 67호, pp.282~302.를 주로 참고하였음.

94) 이 부분은 최영태, 2010, 「5.18 광주 민주항쟁의 기억과 교육」, 『민주주의와 인권』, 제 10권 3호, pp.81~109.를 주로 참고하였음.

95)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남겨진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여기서는 흔히 ‘외상성 증상’이라고 하는 ‘트라우마티즘’을 신체적, 심리적(혹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상호영향 하에 있는 증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면, 5.18에 대한 기억투쟁과 5월운동, 그리고 국가의 대응전략은 트라우마티즘을 해소 및 약화시키기도 하고, 강화 및 증폭시키기도 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트라우마티즘을 만들어내는 매우 복잡한 과정임이 분명해진다. 5.18과 트라우마티즘에 관해서는, 정호기, 2003, 「광주민중항쟁의 '트라우마티즘'과 기념공간」, 『경제와 사회』 58호를 참조.

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트라우마를 당한 이후에 그 치유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둘째로 보상과 기념 사업이 시작되면서 5.18 트라우마티즘에 공감을 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인 지지망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셋째로 기념사업을 통한 트라우마티즘의 해소가 여론 주도층과 일부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5.18의 정치적, 제도적인 해결이라는 것과 트라우마티즘의 극복 혹은 해소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5.18 트라우마티즘을 치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필요한 시점이다.⁹⁶⁾

물론 국가에 의해서 5.18에 대한 보상과 격상이 크게 이루어졌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오랜 세월동안 독재정권에 의해 역사적 기억들이 억압되고 왜곡되어왔다는 점, 5.18의 국가의 권력에의 편입이 5.18의 본질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상이 기념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문제의 본질에 다소 어긋난다는 점에서, 기억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역사는 끊임없는 긴장된 노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길잡이는 바로 개인, 나아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다수적인 기억들 전체다. 특히 광주 기억은 억압되고 배제된 기억이면서 동시에 부조리에 대한 저항의 기억이며, 이는 지난 세기 한국사 전체를 아우른다. 또한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광주의 기억은, 비단 과거의 먼지 쌓인 골동품처럼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정태적으로 과거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적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의 기억은 우리에게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다.

4. 광주를 통해 : 역사적 사건을 기억으로 어떻게 남겨야 하는가?

이처럼 광주는 한국 근대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건들의 무대가 되었던 장소이며, 그 과거의 재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이 공존해 왔던 공간이다. 특히 광주는 민주화를 논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곳이며, 극단적으로는 폭동의 근원지라는 시각부터 숭고한 피를 흘린 민주화의 성지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들과 기억들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이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이 광주에 대한 기억을 남겨야만 할까? 여기에 대한 정답이 존재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정도는 제시될 수 있다고 하겠다.

노라(Pierre Nora)는 우리가 아직도 기억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역사의 불 속

96) 이 부분은 정호기, 2003, 「광주민중항쟁의 '트라우마티즘'과 기념공간」, 『경제와 사회』 58호를 주로 참고 하였음.

에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이 말을 경험기억의 실재적 위기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속적인 세대교체와 더불어 생존한 증인들이 점차 사멸하고 그 결과 경험기억의 위기가 초래하는 것이다. 5·18은 일부 국민들에게는 기억의 대상이고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역사화된 사건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으로보다는 역사화된 사건으로서 5·18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기억과 역사를 구분하여 5·18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양자는 서로 혼재혼용될 수밖에 없다.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5·18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간이 지난 후 구전이나 문헌, 영상물 등을 통해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⁹⁷⁾

이러한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앞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객관성의 추구이다. 역사가는 완벽하게 객관적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완벽하게 객관적이며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역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 체험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책이나 미디어 등 각종 매체에 의한 교육을 통하여 남겨지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모든 역사는 언어적인 구성물로써 역사의 대상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객관적 인식도 존재할 수 없다⁹⁸⁾는 주장도 존재하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타협이며 당위와는 다른 문제이다. 비록 역사학에서의 객관성이란 최대한의 객관성을 갖는다는 제한된 의미 속에서 논의가 출발될 수밖에 없으나⁹⁹⁾ 그것이 궁극적 지향점임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참고문헌〉

- 조동걸, 2000, 「광주학생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 장석흥, 2000, 「광주학생운동의 국내외 확산과 그 성격」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 장신, 2000, 「조선통독부의 광주학생운동 인식과 대응」 『광주학생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 강덕상, 1967, 『현대사자료』 29
- 정해구 외, 1990,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 광주광역시 5·18자료편찬위원회, 1997, 『5·18 광주민중항쟁』 (광주광역시 5·18자료편찬위원회).
- 김응종, 2011,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나타난 ‘기억’의 개념」, 『프랑스사 연구』 제 24호.

97) 최영배, 2010, 「5·18 광주민주항쟁의 기억과 교육」, 『민주주의와 인권 - 제 10권 3호』 p. 83, 84

98) G. G. Iggers, 1997, 「Histori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Hanover, Wesleyan University Press』 pp. 6~10

99) 전병철, 2010, 「포스트모더니즘의 회의론 논의와 역사인식의 객관화를 위한 학습의 모색」, 『歷史教育 第114輯』 pp. 3~4

- 安秉稷, 2007, 「한국사회의 '기억'과 '역사」, 『歷史學報』 第193輯.
- 정해구 외, 1990,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 정호기, 2010, 「5.18의 주체와 성격에 관한 담론의 변화」, 『황해문화』, 통권 제 67호.
- 최영태, 2010, 「5.18 광주 민주항쟁의 기억과 교육」, 『민주주의와 인권』, 제 10권 3호.
- 정호기, 2003, 「광주민중항쟁의 '트라우마티즘'과 기념공간」, 『경제와 사회』 58호.
- 최영배, 2010, 「5. 18 광주민중항쟁의 기억과 교육」, 『민주주의와 인권 - 제 10권 3호』
- G. G. Iggers, 1997, 「Histori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Hanover, Wesleyan Univerity Press』
- 전병철, 2010, 「포스트모더니즘의 회의론 논의와 역사인식의 객관화를 위한 학습의 모색」, 『歷史教育』 第114輯

X. 소쇄원－양산보 그리고 기묘사화

8조: 이영기, 조시래

1. 건립자 양산보에 대하여

양산보의 자는 언진, 호는 소쇄공이라 했으며, 연산군 9년 광주 서창에서 양사원의 세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양산보는 어려서 정암 조광조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으나 당시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신진사류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시도하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남곤 등 훈구파의 대신들에게 모려 화순 능주로 유배되었다. 이때 양산보는 귀양가는 스승을 모시고 낙향했으나 스승인 조광조가 같은 해 겨울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아 세상을 뜨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아 벼슬길의 무상함을 깨닫고 세속적인 뜻을 버린 채 산수 경치가 뛰어난 고향에 은둔하게 되었다. 이때 양산보의 나이 17세였으며 창암촌의 산기슭에 소쇄원을 꾸미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성리학에 몰두하게 되는데, 특히 송의 주무숙을 사숙했다. 양산보의 학문적 활동은 뚜렷이 알 수 없으나 그가 지는 「효부」와 「애일가」에서는 그의 문학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양산보는 1503년에 출생하여 나이 55세인 1557년 돌아갔다. 소쇄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에 의하여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소쇄원을 잘 지키라는 양산보의 유언 때문이다. 100)

2. 소쇄원의 의미와 소쇄원에 담긴 사상

소쇄라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양산보는 더러운 현실을 탈피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상추구에 정진하기 위해 그의 별서를 소쇄라고 이름 지었던 것이다.

양산보의 사람됨에 대해 기위하고 지효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기위하다는 것은 체격이나 성격이 크고 기이하며 자유분방하다는 뜻이며 이는 자유분방한 사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뜻한다. 반면 지효하다는 의미는 효성이 지극하다는 말이다. 이로 부터 그가 성리학 신봉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양산보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그가 다양한 사상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성품은 그대로 소쇄원에 투영되었을 것이다.

이민서가 지은 「행장」에 나타난 그의 학문 자세를 살펴보면 “선생의 학문은 『소학』을 굳게 믿고 모든 학문의 기초로 삼았고, 다음으로 사서 오경을 항상 책상 옆

100) 천득염, 『한국의 명원 소쇄원』, 도서출판 발언, p.41~44

에 두고 공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역경』을 깊이 연구하여 천지만물의 강약과 그 발전과정을 깊이 있게 설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경청하였다.” 그는 『소학』의 실천적 측면에서 효를 강조하였다. 그는 효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소쇄원에 애양단이라는 시설물을 갖추었다.

또한 그는 노장 사상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도연명을 흠모하였는데 도연명은 자연 속에 묻혀 자기 본성에 맞는 세계를 찾고자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쇄원 조성은 현실의 갈등에서 탈피하여 은둔의 안식을 얻으려는 수단인 동시에 도연명의 탈속적 인생관에 대한 흠모의 표현이었다. 노장 사상이 소쇄원에 투영된 것으로 광풍각 뒤쪽에 있는 복사동산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도연명의 무릉도원을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오류선생을 상징한 버드나무도 들 수 있는데 광풍각 앞에 있던 버드나무는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101)

3. 소쇄원 조영의 배경: 호남사림(신진사류)과 조광조, 기묘사화

조광조는 중종 10년에 정계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중종 14년에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한 인물이다. 그는 중종 10년 이후 등장한 신진사림의 일부로 이 신진 사림들은 정치, 사회적 개혁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다. 조광조의 개혁사상과 개혁은 이 문맥 속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조광조의 정치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성리학이었으며, 그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모습은 堯, 舜, 禹 3대의 ‘王道政治’였다. 이러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신과 대간이 임금을 정점으로 하여 조정 내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먼저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조광조가 시도한 개혁은 도덕성의 회복, 이단의 배격, 민생의 안정을 위한 것, 그리고 향약의 보급을 통한 향촌 사회의 개혁 등 다방면에 걸쳐있었다. 이는 女樂의 혁파, 소격서와 기신제의 폐지, 內需司長利(내수사장리)의 혁파, 향약의 보급 등의 형태로 드러났으며, 이는 새로운 통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다.

중종은 이러한 개혁과 함께 이뤄진 조광조의 강력한 도학정치 요구에 대한 압력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국공신 위헌삭제의 문제와 훈구세력의 반발이 일어났고,¹⁰²⁾ 이에 훈구 세력은 중종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101) 김덕진, 2007, 「연구논문 : 양산보의 기묘사화 체험과 소쇄원 건립」, 『역사학연구』, Vol.30 No.-

102) 이한조, 2003, 『靜庵 趙光祖의 改革思想에 關한 考察』(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 ii~iii

“조광조 등을 보건대, 서로 朋黨(붕당)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천거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聲勢(성세)로 서로 의지하여 權要(권요)의 자리를 차지하고, 위를 속이고 私情(사정)을 행사하되 꺼리지 않고, 후진을 유인하여 詭激(괴격)이 버릇이 되게 하여,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멸하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하여 國勢(국세)가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글러가게 하므로, 朝廷(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분개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며, 側目(측목)하고 다니며 重足(중족)하고 섭니다.”¹⁰³⁾

이후 수많은 신진사람들이 숙청당하게 되며,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한다. 이 사건을 거치며 이 당시 조광조가 그동안 이룩했던 개혁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4. 소쇄원의 공간 구성요소

「소쇄원도」에서 나타난 공간구성요소들의 내용을 유사한 요소들끼리 묶어 나누어보면 건축요소, 석물요소, 수공간요소, 외원요소(소쇄원 바깥 주변의 다른 시설), 조경식재요소(식물) 등으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다.

소쇄원의 건축요소의 이름에 나타난 어미로는 각, 당, 정, 정사, 대 등이 있다. 다양한 명칭을 갖는 건물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순서대로 건축물들을 살펴보겠다.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운 정자이며, 객을 위한 사랑방이다. 제월당은 주인이 거처하며 조용히 독서하는 곳이었다. 당호인 제월은 비 갠 뒤 하늘의 상쾌한 달을 의미한다. 고암정사와 부원당은 소쇄원도에는 그려져 있지만 현존하지 않는 건물이다. 소정은 대봉대 위에 있는 초정을 의미한다. 소쇄정이라고도 불리며 소쇄원의 중심이 되며 소쇄원을 대표할 만한 정자였고, 소쇄원에서 제일 먼저 세운 정자라고 추정된다. 여기에 서면 소쇄원의 모든 정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애양단은 겨울철 북풍을 막기 위하여 세운 단이다. 대봉대는 귀한 손님을 맞이 위해 지은 정자이다. 대봉대는 봉황새를 기다리는 동대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다음으로 석물요소로서 괴석, 오암, 광석, 상암, 석가산, 탑암 등의 여러 모양의 암석이 소쇄원의 곳곳에 놓여있다. 수공간 요소로는 수대(물레방아가 있는, 가운데 흙이 파인 돌덩어리), 소당(물웅덩이, 못), 산지순아(소당보다 규모가 큰 못), 투족위교(외나무 다리) 등이 있다. 조경식물요소로는 난, 매화, 파초, 행음, 동백, 와송, 백일홍나무, 유정 등이 있다. 외원요소로는 고암동, 황금정, 죽림재, 행정, 창암촌

103) 『중종실록』 14년 11월 15일.

절등재 등이 있다. 104)

〈참고문헌〉

- 천득염, 『한국의 명원 소쇄원』, 도서출판 발언
- 김덕진, 2007, 「연구논문 : 양산보의 기묘사화 체험과 소쇄원 건립」, 『역사학연구』, Vol.30 No.-
- 이한조, 2003, 『靜庵 趙光祖의 改革思想에 關한 考察』(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104) 천득염, 앞의 책, p.109~p.156